



artv

2024 02+03

vol.173

2024 February & March
Vol.173

ar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2024 SNCF PREVIEW

- 특집 2024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 미리보기 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
- 아티스트 토크 2024 성남작가조명전 참여작가 6인
- 트렌드 팝업 스토어 전성시대



성남문화재단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2024년 02+03월호

통권 173호(비매품) 2024년 3월 11일 발행 | 등록번호 성남.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격월간 |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서정림 | 편집인 심보미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 교열 이지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24 | 홈페이지 www.snart.or.kr |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 인쇄 더프레스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남문화재단에 보내 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푸른 용의 해이자,
성남문화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20년간 한결같았던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기억하며
올 한 해도 감동을 드리는 공연, 깊이를 더한 전시,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성남문화재단과 함께
문화로 행복한 삶,
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이 되시기를 고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



Contents

2024 02+03

Vol.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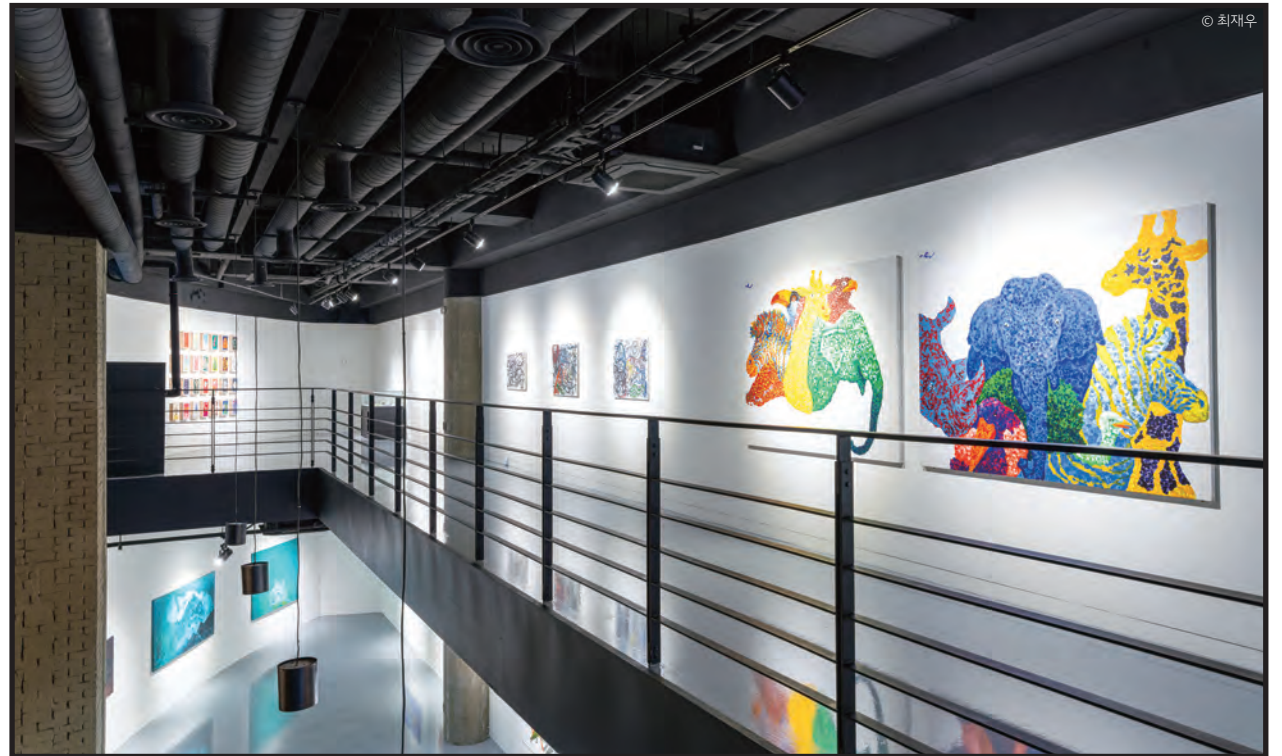
2024 SNCF PREVIEW

재단 문화로 만든 어제, 예술로 빛날 내일	06
공연 '메이드 인 성남'의 문화브랜드를 꿈꾸다	10
전시 지역과 세계를 잇다	18
문화 예술로 함께 나누며 성장하기	22



V I E W

미리보기 1 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	28
미리보기 2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34
미리보기 3 2024 성남작가조명전 1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	36
아티스트 토크 성남작가조명전 참여 작가 6인	40



C U L T U R E +

트렌드 1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미래	54
트렌드 2 팝업 스토어 전성시대	58
시네마 클래식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와 드뷔시의 '달빛'	64
아티스트 픽 이럴 땐 이런 앱	68
장애인 예술 경계와 쟁점 다각도로 바라보기	70
생활 속 디자인 요리 도구의 역사	74

S E O N G N A M +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84
3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89
SNART NEWS 성남미디어센터 경기도지사상 수상 외	92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6

2024 SEONGNAM PREVIEW

2024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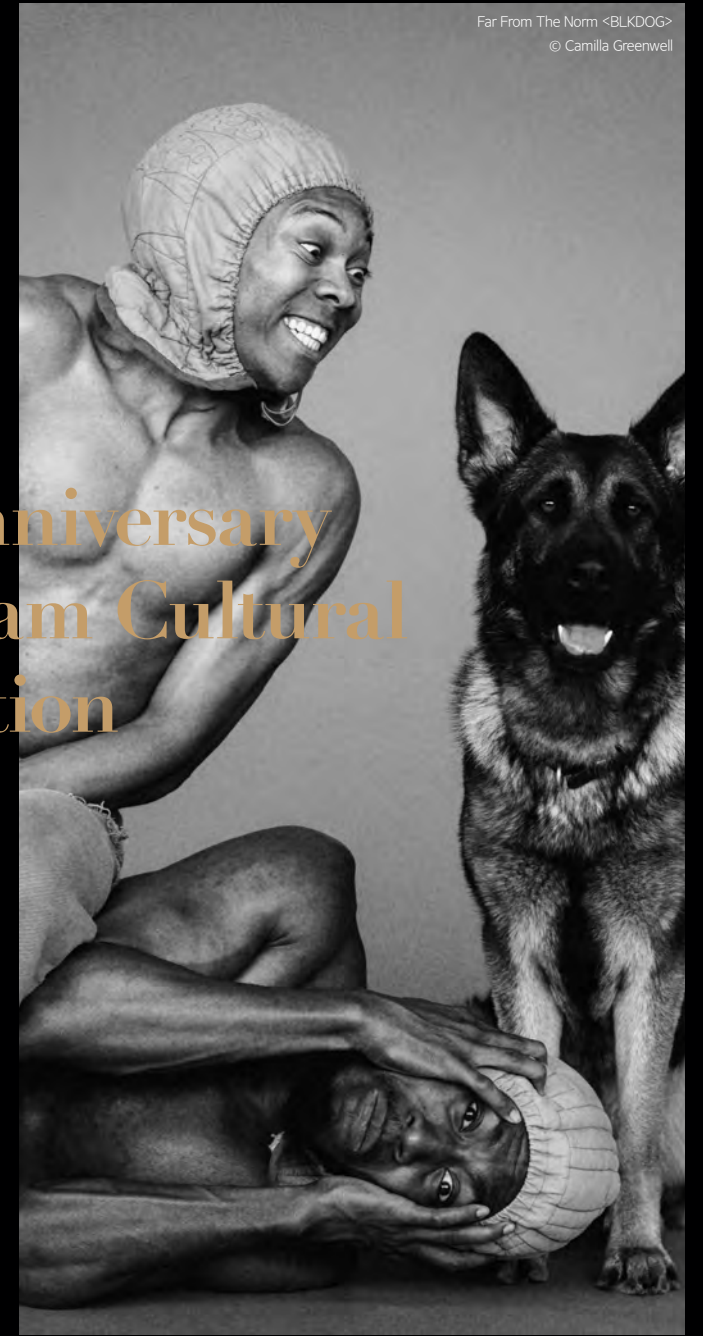
존 엘리엇 가디너 &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 Chris Christodoulou



20th Anniversary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창립 20주년
성남문화재단

- 06 재단 | 문화로 만든 어제, 예술로 빛날 내일
- 10 공연 | '메이드 인 성남'의 문화브랜드를 꿈꾸다
- 18 전시 | 지역과 세계를 잇다
- 22 문화 | 예술로 함께 나누며 성장하기



Far From The Norm <BLKDOG>
© Camilla Greenwell

2024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문화로 만든 어제,
예술로 빛날 내일



‘푸른 용의 해’인 2024년은 성남문화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재단 창립 20주년과 2025년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시민의 삶이 문화예술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메이드 인 성남’의 문화브랜드를 구축하는 노력은 올 한 해에도 계속된다. 그동안 쌓아 온 20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의 미래를 만들어 갈 성남문화재단의 2024년 계획을 들여다본다.

2004년 성남문화재단 창립 이후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재단이 걸어온 길은 서울 중심의 문화예술 지형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성남의 곳곳에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된 올해, 성남문화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를 준비한다.

성년을 맞이한 성남문화재단이 새롭게 다짐한 올해의 마음가짐은 어떤 모습일까? 재단은 2024년 주요 운영 방향을 크게 ‘문화도시 성남의 도시 브랜드 확립’ ‘지역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 강화’ ‘원칙과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 및 신뢰받는 재단 운영’ ‘시민문화예술 놀이터’ 기반 마련으로 잡았다.

먼저 문화도시 성남의 도시 브랜드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시대를 대표하는 우수 공연 단독 유치와 더불어, 해외 공연 단체 및 국제 교류의 해의 공연을 엄선해 성남 단독으로 선보이고, 영국왕립예술대학^{RCA}과의 첫 교류 사업 등 국제 교류도 진행한다. 2005년 성남아트센터

개관 이후 ‘세계 최고의 공연을 처음 만나는 곳’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수많은 성남 단독, 한국 초연 무대를 선보인 기획력으로 성남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다시 보여 준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가천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재단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접점 역시 확대한다.

지난해 10월, 4일간의 축제 기간에 9만6천여 명의 시민이 현장을 찾아 성남 대표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성남페스티벌’은 오는 가을 제2회 축제를 앞두고 있다. 올해에는 2023년 첫 축제 이후 지역사회가 제안한 다양한 의견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모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축제, 일상에서 예술과 마주하는 축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성남의 예술인과 단체, 시민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 역시 강화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예술인과 예술 단체를 위한 교류와 성장 지원, 시민을 위한 맞춤형 예술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풍요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하고,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한 성남만의 예술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중진 작가 지원사업인 ‘성남작가조명전’과 같은 기획전시 시리즈는 다채로운 큐레이션을 통해 재능 넘치는 지역 예술가들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알리기 위한 노력이다. 또 예술인들의 바람을 반영한 지원 체계와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예술가의 성장과 창작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한다. 시민 생활문화의 대표 아이콘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생활권 내 문화공간에서 다양

한 문화예술 체험과 참여, 공감을 만들어 가는 ‘문화공간+’, 시민 크리에이터의 산실 성남미디 어센터 등 시민 생활문화의 창작과 성장, 확산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지속한다.

시민의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성남문화재단은 오는 4월 16일 ESG¹ 경영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체제 구축, 문화예술을 통한 상생의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신뢰 기반의 혁신경영 체계 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하는 ESG¹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형식적인 선언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촘촘히 살피는 상생의 동행을 위한 다각도의 섬세한 실천을 이어 갈 계획이다. 여기에 창립 20주년을 맞아 원칙과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 재단의 미래를 위해 함께 소통

하고 나아가는 전사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선한 공간 변화 소식도 기억하자. 지난해 성남시가 발표한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올해 하반기까지 성남아트센터 광장과 주변 일대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공연·전시 관람뿐 아니라 예술과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모습이 기대된다. 지난 20년간 시민과 관객이 보내 준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보답하기 위한 스무 살 성남문화재단의 다짐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다채로운 사업과 콘텐츠가 2024년 올 한 해 모두의 곁에서 문화예술의 기쁨을 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한다.

¹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각각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기업의 비(非)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성남아트센터 전경



Performance

2024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공연 새로운 20년, ‘메이드 인 성남’의 문화브랜드를 꿈꾸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2005년 성남아트센터 개관 이후 지역과 세계를 보듬는 화제의 기획으로 ‘콘텐츠의 힘’을 보여 준 성남문화재단.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도 세계 최정상 예술가들의 단독·화제의 공연, 긴 시간 사랑받아 온 브랜드 공연 시리즈와 기획 콘텐츠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의 힙합 무용단 파 프롬 더 놀의 <블랙독>. 2019년 올리비에상 수상작이다. © Camilla Greenwell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백조의 호수>



힙합에서 아크로바틱까지:

성남 단독, 화제의 무용을 만나다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수식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 우리가 알던 고전 발레 <백조의 호수>는 잠시 잊어도 좋다. 오는 8월 성남아트센터에서 국내 초연을 앞둔 중국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Xi'an Acrobatic Troupe의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이제껏 접하지 못한 새로운 전율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차이콥스키의 음악 속에 중국 곡예 예술의 전통 기교, 서양 고전 발레의 우아함을 절묘하게 결합해 인간의 몸이 빚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펼쳐 낸다. 남성 무용수의 머리 위에서 아라베스크 자세를 취하는 여성 무용수의 경이로운 자태는 절로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멋진 엔터테인먼트’(가디언), ‘경이로운 곡예의 클래식 안무’(인디펜던트)와 같은 유럽 주요 언론의 찬사에서도 알 수 있듯, 성공적인 하이브리드란 어떤 것인지 증명하는 작품이다.

무대의 주인공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은 중국 중앙방송총국(CMG) 주최로 매년 중국 최고의 예술 콘텐츠를 소개하는 대형 쇼 프로그램 <춘절 전야제Spring Festival Gala>에서 파격적인 무대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공연 팀. 몬테카를로 국제 아크로바틱 대회 황금곡예상 등 굵직한 세계 대회를 두루 석권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의 무대를 드디어 성남에서 단독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춤의 새로운 가능성에 관심을 둔 관객이라면 영국의 힙합 무용단 파 프롬 더 놀Far From The Norm, 이하 FFTN의 <블랙독BLKDOO>을 주목하자. ‘평범함에

서 벗어난다’는 이름처럼 정형화된 틀 대신 자유로운 실험과 도전을 추구하는 FFTN은 2009년 런던 출신 안무가 보티스 세바Botis Seva, 1991-가 창단한 단체다. 세계 무용계의 차세대 스타 세바는 힙합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구조·연출법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안무를 창조하는 안무가 겸 연출가. 글로벌 브랜드 샹넬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갈 예술가들의 지원을 위해 2021년 신설한 샹넬 넥스트 프라이즈CHANEL Next Prize¹의 첫 수상자이기도 하다.

6월 22일(토)~23일(일) 이틀간 한국 초연으로 선보이는 <블랙독>은 2018년 영국 무용 예술을 대표하는 공연장 새들러스 웰스Sadler's Wells의 20주년 기념 위촉작으로 첫 선을 보이며 호평받은 데 이어, 2019년에는 세계 공연계에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올리비에상Olivier Awards의 ‘최우수 무용 신작Best New Dance’ 부문 수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작이다. 힙합 댄스를 기반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실험과 무머가 결합된 이 작품은 세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은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청년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을 담았다. 런던 거리의 힙합과 스트리트 댄스, 흑인 문화 속에서 길러진 본능적인 감각과 경험에 기반한 세바의 창작은 뉴욕의 뒷골목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천재 화가 바스키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2005년 개관 이후 윌리엄 포사이스의 <헤테로토피아>, 발레

¹ 2021 CHANEL Next Prize는 디자인, 영화, 공연, 비주얼 아트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10인이 선정되었으며, 한국의 뮤지션 정재일이 포함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10만 유로의 지원금이 수여된다

뒤 노르 컴퍼니 <비극> 등 세계 무용계의 화제 작들을 과감히 선보여 온 성남아트센터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블랙독> 역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너, 괴르네, 피레스...
클래식 거장들의 반가운 내한

올해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여러 굵직한 내한 공연 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원전 연주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지휘자 존 엘리엇 가디너John Eliot Gardiner와 그가 이끄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Orchestre Revolutionnaire et Romantique'의 내한이다. 지난해 영국 찰스 3세 대관식 식전 연주에서도 지휘를 맡았던 가디너는 명실상부한 영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거장. 2004년 몬테베르디 합창단과의 내한 이후 20년 만에 한국을 찾는 가디너는 오는 10월 성남아트센터를 포함해 수도권 4개 공연장에서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완주한다. 그동안 음반으로, 또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연주한 베토벤 교

향곡 전곡 사이클로 화제를 모았던 가디너의 베토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성남아트센터에서는 10월 9일(수) 콘서트홀에서 베토벤 교향곡 4번과 5번을 선보인다. 80대의 나이, 가장 원숙한 정점에 선 노거장의 해석을 마주할 수 있다.

독일 예술가곡(리트)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Matthias Goerne는 10월 26일(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Winterreise>로 콘서트홀 무대에 오른다. 풍부하면서도 중후한 음색으로 긴 세월 대표적인 독일 가곡 해석자의 자리

를 지켜 온 괴르네는 2005년 성남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당시 첫 내한 이래 2015년 개관 10주년 무대에도 선 인연이 있다. 특히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음반과 실연으로 언제나 찬사와 감동이 함께했던 대표 레퍼토리다. 2024년의 괴르네가 연륜과 깊이로 빛어낸 해석이 기대된다.

연가곡 무대인 만큼 함께할 피아니스트 역시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괴르네는 알프레트 브렌델과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엘리자베스 레온스카

야, 알렉산더 슈말츠, 안드레아스 해플리거, 최근에는 조성진까지 당대의 내로라하는 피아니스트들과 호흡을 맞췄다. 이번 공연에서는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Maria João Pires가 섬세한 피아니즘으로 빛어낸 괴르네와의 앙상블이 기대된다.

지휘자 존 엘리엇 가디너와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는 베토벤 교향곡 4번과 5번을 연주한다



© Felix Briede and Deutsche Grammophon

© Marie Staggat and Deutsche Grammophon

↓
(좌)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
(우)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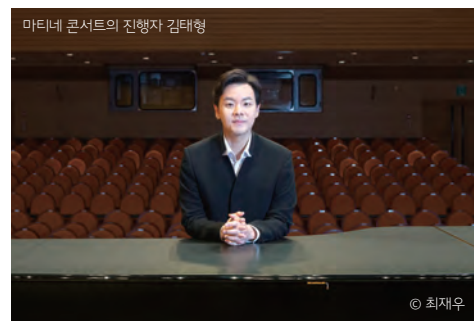


© Richard Termine

이유 있는 인기, 브랜드 콘서트

오랜 시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 온 성남아트센터의 브랜드 공연 시리즈도 계속된다. 올해로 19번째 시즌을 맞은 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 마티네 콘서트는 '보헤미아의 숲과 들'이라는 주제 아래 체코 출신, 또 체코와 인연이 깊었던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오랫동안 마티네 콘서트와 함께한 관객들의 음악적 취향과 식견을 반영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면면은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만의 믿음직한 경쟁력이다. 2024년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 현 베를린 슈타츠헤펠레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종신 수석인 오보이스트 함경,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했던 소프라노 황수미 등 특급 연주자들이 관객들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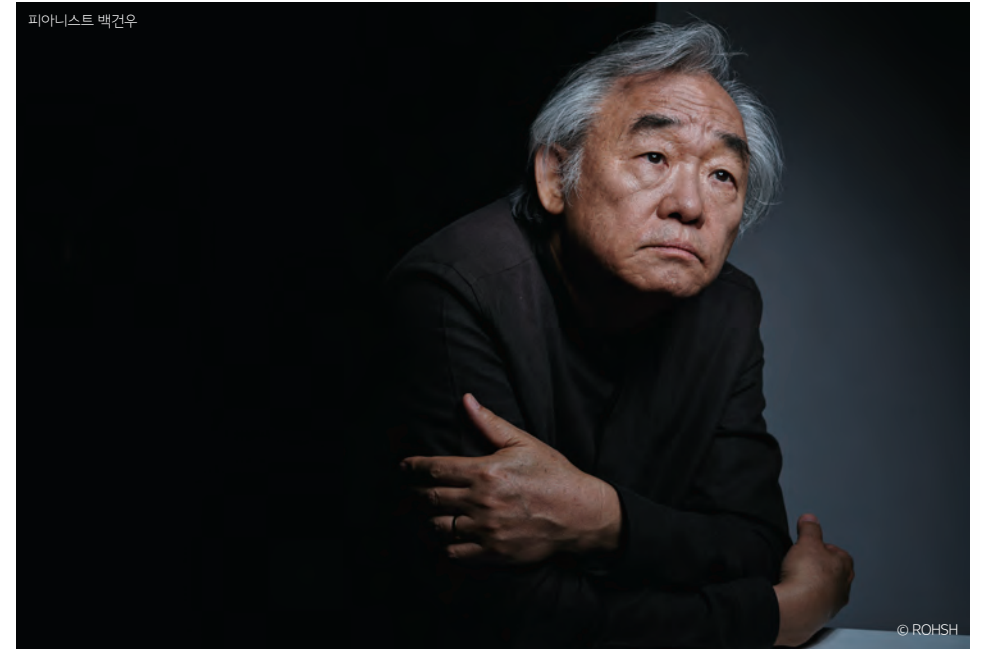
마티네 콘서트의 해설자로 진행과 연주 모두 진심을 가득 담아내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존재는 이 시리즈를 더욱 빛내는 원동력이다.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음악이 그려 낸 보헤미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연극을 단돈 1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소개하는 '연극만 원滿員'은 매해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소극장 공연의 아담한 객석 규모에도, 2011년 첫 시작 이후 13년간 누적 관객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연극만원'의 굳건한 인기를 엿볼 수 있다. 올해는 <행복을 찾아서> 3월 8~10일, <컬렉티드 스토리즈> 4월 19~21일, <슈만 Schumann> 5월 10~12일, <웃음의 대화> 7월 5~7일, <별이네 헤어살롱> 8월 30일~9월 1일까지, 다양한 예술가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의 모습을 그린 연극 5편을 소개한다. 매해 여름에서 가을까지 푸르른 야외 공연의 즐거움을 선사했던 파크 & 피크닉 콘서트도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원도심을 넘어선 공연의 랜드마크, 성남아트리움

중원구·수정구 원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2022년 개관 이후 다채로운 클래식 무대를 선보여 온 성남아트리움. 2024년은 '성남아트리움 클래식 시리즈'로 발레와 오페라까지 망라하는 무대, 성남의 또 다른 공연예술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서울발레시어터와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발레 <백조의 호수> 5월 11일와 콘서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1월 23일은 장르의 기본적인 형식과 수준은 유지하되 무대와 소품, 의상 등을 간소화해 초심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꾸민다. <코지 판 투테>(연출 장재호)는 소프라노 박재은, 메조소프라노 방신제, 바리톤 김경



천 등이 출연하고 지휘자 김성진과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맡는다.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의 리사이틀은 진지한 애호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순서다. 상반기에는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 5월 24일, 하반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리사이틀 9월 7일이 대기 중이다. 탁월한 실력과 친근함으로 대중에게서 긴 시간 사랑받아 온 명품 연주자들의 만남인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8월 28일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피아니스트 양성원, 첼리스트 송영훈이 한자리에 선다. 지난해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콥스키 음악으로 호응을 얻었던 '작곡가 시리즈'는 올해 2회에 걸쳐 베토벤의 대표작을 탐구한다. 첫 순서인 6월 26일은 '5번'의 날. 이병욱이 지휘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이혁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곡 5번 '황제'와 교향곡 5번 '운명'을 준비했다. 7월 27일에는 지휘자 최희준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와 교향곡 7번을 들려준다.





성남큐브미술관의 대표 기획전 중 하나인 <성남의 얼굴>전

성남큐브미술관은 올 한 해에도 지역미술관의 공공성을 담아내기 위한 사업, 지역미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과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공성과 예술성을 기반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성남큐브미술관의 한 해를 미리 살펴본다.

지역작가를 위한 지원과 교류, 도시 성남의 지역성을 예술로 담아내는 작업은 성남큐브미술관이 추구해 온 가치다. 우선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작가·중진작가들의 창작을 응원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이 반달갤러리에서 다섯 차례 관객을 만난다. 6인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룹전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2월 23일~4월 14일} 개막을 시작으로 조창환^{4월 26일~6월 16일}, 이계진^{6월 28일~8월 18일}, 고혜숙^{8월 30일~10월 20일} 작가의 개인전과 지역 중진작가들의 그룹전^{11월 1일~12월 22일}이 이어진다. 조창환·이계진·고혜숙 작가는 지난해 '성남의 발견전' 작가 30인 중 최종 선정 작가들로,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작업을 꾸준히 소개하는 선순환의 의지가 돋보인다.

성남 외 지역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예술 교류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미술 문화의 상호 발전과 창작 네트워크 확장을 꿈꾸는 **지역예술가교류전**은 2월 부산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과 지역 예술가 교류 및 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11월 기획전시실에서 교류전^{11월 1일~12월 1일}을 진행한다.

성남큐브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주제기획전을 통해 열린 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2월 16일~12월 22일} 상설전시실, 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해 시민에게 미술 문화 향유 기

Exhibition

2024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전시 지역과 세계를 잇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성남큐브미술관>도 미술관의 공공성을 지켜 가기 위한 노력이다.

지역과 사회를 담아 낸 큐레이팅

성남큐브미술관의 '동시대이슈'와 '동시대미감'전은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습과 이슈를 현대미술로 풀어내는 대표 기획전으로, 그동안 '이슈'와 '미감'을 격년으로 교차 주최하며 문화·예술·사회·경제 등 사회상을 반영한 주제를 선보여 왔다. 4월 19일~6월 9일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2024 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A Sonnet for Earth>는 초국가적 이슈인 '기후 위기'를 마주한 미술관의 역할을

고민하며 '기후 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8명(팀)의 작가들이 평면·입체·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지구 온난화 현상을 비롯하여 해수면 상승, 토양 및 해양 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국제적 환경 이슈들을 현대미술의 시선을 통해 조망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음악가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고 경종을 울리는 글로벌 프로젝트 '사계 2050: 음표로 쓰인 기후변화 미래전망 보고서' 콘텐츠가 등장한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작품은 실연이 아닌, 악보를 활용한 설치예술로 선보일 예정이다. 성남큐브미술관을 상징하는 또 다른 대표 기획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4월 14일까지 진행 중인 성남작가초명전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 전시 전경



2023년 6월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에서 진행된 지역작가교류전 <뜻밖의 만남: 인카운터> 전시 전경

은 <성남의 얼굴>전이다.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성남의 얼굴>은 그동안 성남의 역사·문화·예술·생태·환경 등 다각적인 면모를 연구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발굴과 협업으로 도시의 다채로운 미술 지형을 살펴보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2024년은 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뿐만 아니라 성남아트센터 야외 광장 곳곳에 전시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친근한 휴식 공간으로 다가서는 야외 조각전으로 꾸민다. 하반기 성남아트센터 특화거리 조성과 맞추어 모두에게 활짝 열린 미술관을 기대해도 좋겠다. 꼭 주목해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도 있다. 2024년 첫 선을 보이는 **영국국제교류사업 여름특별 기획전** 7월~8월은 영국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 이하 RCA)과 함께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데이비드 호크니, 트레이시 에민 등 세계적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배출한 RCA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의 2023년 세계 대학 순위 중 미술·디자인 부문 1위(9년 연속)를 차지한 예술 명문 재단이다. 지난해 8월 RCA와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개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협력의 결과물이 울려 퍼져진다. 성남문화재단과 RCA가 공동 기획한 워크숍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창작한 결과물의 전시회와 문화예술 특강을 선보인다.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성남큐브미술관의 의미 깊은 도전이 워크숍 참가자들에게는 폭넓은 선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험을 선사하고, 시민 관객들에게는 즐거운 문화 향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4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문화 예술로 함께 나누며 성장하기

성남문화재단의 책임 중 하나는 예술인과 단체, 시민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의 역할이다. 재단은 2024년에도 지역의 역량 있는 예술인과 예술 단체가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참신하고 지속적인 협력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는 맞춤형 예술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풍요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성남아트센터 공연·전시 연계 특강, '문화공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올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누구나 가까이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유아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공연팀이 학교로 찾아가 교육 효과와 예술성을 갖춘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공연'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문화예술교육(장애인 문화예술교

우선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한다. 예술인들의 교류와 협력 기회 확대 및 지역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며, 판교테크노밸리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술과 예술의 융합 등 지역특화 예술창작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장르는 물론 성남 내 지역별 특성까지 꼼꼼히 고려한 지원으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자 한다. 국내 최초 생활문화 1번지로 자리매김한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와 지역시민 누구나 일상적이고 자발적으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는 시민들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생활문화 향유 플랫폼으로 재도약을 모색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올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누구나 가까이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유아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공연팀이 학교로 찾아가 교육 효과와 예술성을 갖춘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공연'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문화예술교육(장애인 문화예술교

육)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그림책 비엔날레'는 그림책을 기반으로 예술 체험과 공연, 전시가 혼합되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가 될 것이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어린이 대상 융복합 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성인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배움 욕구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감상·실기 교육을 지속한다. 직장인을 위한 저녁반 강좌 강화, 성남아트센터 공연·전시 연계 특강, '아카데미 플러스(명사 특강, 원데이 클래스, 신규 강좌 시범 운



Culture

영) 등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시민과 관객들의 폭넓은 니즈에 부응하는 세밀한 기획이 돋보인다. 시민 누구나 미디어로 배우고 즐기며 소통하는 공간인 성남미디어센터는 2024년에는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시민 중심 미디어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뉴미디어 프로그램, 청년과 예술인을 위한 미디어아트 등의 강좌 강화 역시 시민 크리에이터들의 생활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노력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예술인과 함께하기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재단은 그동안 진행해 온 지원 체계를 더욱 꼼꼼히 살펴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예술인 지원 성과공유 포럼'을 진행해 재단의 공모 지원사업을 진단하고, 예술인들과 함께 개선 방안 모색을 마쳤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 성남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5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합 진행하는 '2024 예술창작지원사업 통합 공모'다.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편

일상 속 공간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그 중 한 곳인 수내동 샛별채널터에서 진행된 야외 분재 클래스 현장



의성은 높이고, 지원 방향 역시 한층 다양하고 세심하게 개편했다.

우선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공모를 통합 추진해 예술인들이 각 분야의 특성과 필요성을 총괄적으로 검토,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2024 예술창작지원사업 통합 공모'는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지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모든예술31' ▲청년예술활동 지원 ▲성남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성남예술인 교류·협력 지원 등 5개 분야로 지원 규모는 총 5억 8천1백만 원이다.

공연이나 시각, 다원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창작 발표를 지원하는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다년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예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이들의 창작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또 일회성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현장 평가를 통해 다년 지원으로 지역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경기지역 예술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예술 31'은 4차 산업 특별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성남에 맞는 지역특화 콘텐츠 창작 지원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 프로젝트 분야 지원을 신설했다.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도 더 촘촘하게 개편했다. 성남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공모지원은 프로젝트 준비 과정부터 사전 제작과 시범 운영, 작품 발표까지 단계별로 세심하게 지원한다. 예술 전공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또는 아직 발표 이력이 없는 19~29세 이하 예비 예술



↑ (좌) 수준 높은 예술 강좌를 만날 수 있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의 2022년 '그림책 비엔날레' 현장

인을 위한 지원도 새롭게 진행한다. 예비 예술인의 프로젝트 기획부터 제작까지 지원하며 실력 있는 예술가 발굴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은 기존 창작공간 임차료 일부 지원을 지속하고, 사업 종료 후 잔여 예산을 지역예술가들의 공연 및 전시 발표 공간 대관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작 활동에 꼭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주고,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신설 분야인 '성남예술인 교류·협력 지원사업'은 4인 이상의 예술인이나 3개 이상의 예술

단체로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예술인 교류와 네트워킹, 창작기획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예술인과의 교류·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성남 지역 예술인(단체)의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모든예술 31'과 청년예술 지원사업 중 '예비예술인 지원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공모는 지난 3월 8일 접수를 마치고, 다양한 지역예술인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예술의 평생배움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지난 2020년 12월, 수정구 산성동 옛 영성여자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개관 3년 만에 '성남의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성남시민의 문화

예술교육진흥과 효율적 지원이라는 탄생 취지대로, 그동안 기능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예술교육가와 교사, 지역단체들을 아우르는 활발한 소통 속에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지난 3년간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은 800여 개, 수강생 연인원은 무려 10만9천여 명에 달한다. 또 1천 명 이상의 예술교육가들이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550개 이상의 기관과 연계하며 성남만의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 왔다. 4년간 공모사업에서 지원금 6억8천여만 원을 유치한 성과 역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가 그동안 일궈 온 노력을 증명한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의 차별점은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다. 먼저 지역의 영유아 교육기관과 협력해 그림책과 미술·움직임·연극 등 여러 장르를 연계한 유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그림책예술놀이',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그림책 비엔날레'를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교사와 예술강사가 협력해 초·중·고교의 교육 과정을 예술적 요소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이끄는 '교과연계 교육연극'은 매년 20여 개 학교가 참여 중이며, 올해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적 이슈를 생각하고 이를 예술로 표현하는 중학교 미술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버 세대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지역의 노인·복지회관 등과 연계, 성남 노인문화예술교육 협의체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노인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발굴 등을 진행하는 '예술로*손잡기'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전임 예술교육가 운영,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과 성남문화예술교육주간 개최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거점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예술로 함께 나누며, 키우는 성남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성남문화예술교육 기초 거점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고, 'IT 관련 기술과 예술' 융합 등 성남 특화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제도의 안정화와 효율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이 준비한 문화예술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다양한 예술의 경험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 가는 작은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본관

미리보기 1

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

미리보기 2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미리보기 3

2024 성남작가조명전 1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

아티스트 토크

성남작가조명전 참여 작가 6인



PRE
VIEW

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

보헤미아로 떠나는 음악 여행

글 양창섭 음악 칼럼니스트



성남아트센터의 간판 클래식 음악 기획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티네 콘서트가 올해도 찾아온다. 언제나 신선한 프로그램, 멋진 음악을 들려줄 출연진, 그리고 가이드 역할을 해 줄 최고의 해설자인 피아니스트 김태형까지 삼박자가 갖춰져 있으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콘서트홀 객석에 앉기만 하면 되리라.

마티네 콘서트의 해설을 맡은 피아니스트 김태형



올해의 연간 타이틀은 '보헤미아의 숲과 들'이다. 보헤미아는 정확히는 체코의 왼쪽 지역을 이리니 크게 보아 체코 음악가의 음악이나 이 지역에 사연을 가진 음악을 듣게 된다. 오스트리아의 바로 위에 자리 잡은 체코는 오른쪽의 슬라브 문화권과도 교유하면서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갖춰나갔다.

3월 첫 공연은 체코 민족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스메타나의 몫이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이던 3월생이기도 한 그의 희극 오페라 <팔려간 신부> 서곡은 현악기의 멋진 구사나 알기 쉬운 멜로디, 시원시원한 다이내믹으로 인기가 높다. 이어지는 <나의 조국>은 여섯 곡 모두를 실연으로 감상하는 드문 기회다. 매년 5월 열리는 '프라하의 봄' 축제의 개막 공연(스메타나의 기일인 5월 12일)에서는 이 곡을 연주하는 것이 전통이다. 과천시향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서진이 성남시향을 지휘한다.

4월의 작곡가는 모차르트다. 프라하는 모차르트를 사랑했으며, 모차르트 말년에 주 활동 무대가 되었다. 이날의 연주곡 모두가 프라하와 관계가 있다. 교향곡 38번은 프라하에서 초연되었기에 '프라하'라는 부제가 붙었고, 그 성공을 계기로 위촉받아 역시 그곳에서 초연한 오페라가 <돈 조반니>다. 모차르트는 클라리넷 협주곡 일부를 프라하에서 작곡하기도 했으며, 역시 그곳에서 초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젊은 지휘자 정예지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르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했던 조인혁

이 명곡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5월에는 백 년쯤 더 과거로 올라가자. 보헤미아 지역은 바로크 시대에도 훌륭한 음악가를 배출했다. 비버는 그곳에서 태어나 잘츠부르크에서 전성기를 누린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인데 그의 신선한 관현악곡들을 들어 볼 기회다. 가령 <바탈리아>는 제목처럼 전투를 묘사하는데, 불협화음도 들리고 재미있는 연주법도 볼 수 있다. 리틀러, 라이헤나우어, 젤렌카 등 듣다 보면 귀가 즐거워지는 음악들의 향연이다. 조르디 사발의 에스페리오 XX와 르 콩세르 데 나시오 Le Concert Des Nations 외에도 무수한 고음악 단체에서 리더를 맡았던 만프레도 크레머 Manfredo Kraemer가 카메라 안티콰 서울을 이끌며 보여 줄 리더십과 카리스마 넘치는 바이올린이 기대된다.

6월은 드디어 드보르자크다. '카니발' 서곡은 제 목처럼 흥겹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자주 연주되지 않아 안타까운데 실연으로 감상할 좋은 기회다. 교향곡 8번은 전성기 드보르자크의 능수능란한 관현악법과 보헤미아의 서정이 잘 결합되어 있다. 지휘자로 자리를 잡은 이승원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르며, 베를린 슈타츠헤펠레의 악장으로 강렬한 음악을 들려주는 이지윤이 드보르자크 협주곡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 줄 것이다.

7월에는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말러와 모라비아에서 태어난 야나체크를 만난다. 말러는 교향곡 작곡가였으나 가곡으로도 훌륭한 작품을 남겼

다. <뤼케르트 가곡>은 교향곡 5번 시기에 작곡되었으며 음악적으로도 무관하지 않다. 그중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이라는 곡은 알마 말러에 대한 음악적 연서이며 그렇기에 이날 공연의 첫 곡이 5번 교향곡의 4악장이라는 것도 적절하다. 메조소프라노 양송미가 부드럽고 중후한 목소리로 이를 노래한다. 야나체크는 말러보다 6년 일찍 태어났지만 유명해진 것은 말러가 죽고도 한참 지나서였다. <타라스 불바>는 우크라이나 카자크들의 이야기를 그린 고골의 중편 소설을 3악장으로 표현한 랩소디다. 최근 부산시향 지휘자로 선임된 홍석원이 경기필하모닉을 지휘한다. 8월에는 해설을 맡고 있는 김태형이 피아노 앞에 앉는다. 그가 연주할 독주곡은 야나체크의 <안개 속에서> 등이다. 민속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야나체크의 피아노 음악을 감상한다. 우아한 목소리의 소프라노 황수미는 역시 보헤미아에서 자란 글루크와 드보르자크 등의 오페라 아리아를 김태형의 반주로 노래한다. 황수미가 부르는 드보르자크의 '달에게 바치는 노래'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과 함께 발레를 감상하는 기회도 있다. 9월엔 유니버설 발레단이 발레 <돈키호테> 갈라를 선보인다. 모라비아에서 태어난 밍쿠스는 러시아에서 안무가 프티파 등과 협력하며 <라 바야데르> 등 발레 음악을 작곡했다.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콤파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책임진다.

10월에는 젤렌카의 미사곡을 듣는 드문 기회가 찾아온다. 보헤미아에서 태어나 당시 유럽 최고

의 악단인 드레스덴 궁정 악단의 연주자로 사실상 카펠마이스터 역할을 하기도 했던 젤렌카는 많은 미사곡을 작곡했으며 이번에 연주하는 <미사 보티바>는 그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힌다. 생동감이 넘치면서 대담하고 분위기도 밝다. 70분이 라는 시간이 '순삭'될 것이다.

11월에는 20세기 초중반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마르티누의 차례다.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자양분을 흡수했던 그의 매력이 한껏 드러나는 오보에 협주곡은 핀란드방송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 중인 함경이 협연한다. 후반부에는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드디어' 듣는다. 부산시향을 의욕적으로 이끌었던 최수열과 경기필하모닉의 연주가.

대미를 장식하는 12월, 윤이상 콩쿠르 우승 등 화려한 이력의 첼리스트 이상은이 난곡이자 명곡인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을 협연한다. 후반부에는 드보르자크의 제자(겸 사위)이자 마르티누의 스승이었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수크의 <겨울 저녁 이야기>를 백승현이 지휘하는 성남시향의 연주로 듣는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겨울 이야기>에 기반한 곡으로 질투와 반성, 사랑과 희망을 노래한다. 15분이 되지 않는 곡이지만 10회의 마무리로 손색이 없다.

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
일시 | 3~12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0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오보이스트 함경



소프라노 황수미

MATINÉE
CONCERT

PREVIEW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예술가의 사유와 마주하며 나의 사유를 담다

글 이수정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사진 최재우

성남큐브미술관은 공립미술관으로서 미술관 소장품을 공유하여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가치를 나누고자 매년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은 2023년 <성남의 발견>전 공모를 통해 수집한 신(新)소장품과 기(舊)소장품을 활용한 주제 기획전으로 선보인다.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2024. 2.16.(금) - 12.2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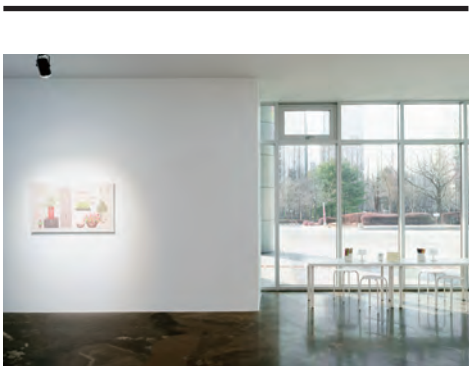
성남큐브미술관은 성남의 공립미술관으로서 2015년부터 미술관 소장품을 수집해왔다. 미술관 소장품은 공공 자산이며, 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공유하여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가치를 나누고자 매년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은 2023년 <성남의 발견>전, 공모를 통해 수집한 신(新)소장품과 기(舊)소장품을 활용한 주제 기획전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 <사유의 정원>은 동시대 작가 8인의 작품 12여 점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사유의 여정'을 만나고자 기획되었다. '사유(思惟)'는 본래 인간의 이성(理性)작용을 의미하며 철학, 과학, 예술 전반에 걸쳐 인류의 근간이 되어왔다. 하지만 오늘날 '사유'의 개념은 기존 이상의 사고를 넘어 장소, 사계 등 현대인들의 정신적 자유와 심리적 평화 영역까지 아우르며 보편적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

박상미, 고혜숙, 윤길영, 유봉상, 유한이, 조창환, 이계진, 황현숙 8명의 작가가 만든 <사유의 정원> 속에서 예술가의 사유와 마주하며, 보는 이에게 내면의 풍경이 선사되길 기대한다. 또한 일상의 혼란함과 고단함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온한 공간에서의 사유를 통해 삶의 가치와 진정성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사유의 정원>은 동시대 작가 8인의 작품 12여 점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사유의 여정'을 만나고자 기획되었다. <사유의 정원> 속에서 예술가의 사유와 마주하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유를 통해 찾아낸 아름다움으로 새로운 영감을 안겨 주길 바란다.

박상미 작가의 <내 자리>는 화려한 색감을 배경으로 수목의 흑백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공간 속에 융화하지 못하는 제3의 주체를 표현하며 작가의 내면과 인간관계를 이야기한다. **고혜숙** 작가는 한국의 정서와 미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작품 <사—잇길에서>도 조각보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공간 속으로 끌어내 해체와 재배치를 통해 전통 한국의 미를 다시 소환한다. **윤길영** 작가는 아크릴릭에 부조적 형태를 돌출시켜 본질을 향해 육박하는 생명력 있는 표현으로 <그리움>을 담는다. **유한이** 작가의 <육상정원>은 정형화된 기하학적 공간과 대조적으로 감각적이고 유기적인 '개자원화보(芥子園畫譜)'의 도판 이미지를 통해 인간적인 자연의 한 장면을 표현했다. **유봉상** 작가의 <JJ20160625>는 차갑고 날카로운 '뭉'과 자연히 만들어지는 녹색 명암 그림자로 자연 탐사에서 교감한 풍경을 빚어낸다. **조창환** 작가의 작품 <BREATH(숨)>은 한 올 한 올 물감을 쌓아 독특한 물성과 색채로 빚어낸 하나의 추상 이미지 속에 들숨과 날숨, 미세한 공기의 흐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각화했다. **이계진** 작가는 먹과 소금의 우연적 효과를 활용한 <소금산수> 시리즈 작품에서 무의식에 내재된 기억들



속 작가만의 이야기를 조형적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황현숙** 작가의 <엄마의 추억 1>은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며 어머니와 연관된 전통적인 소재들을 기억 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낸 듯이 공간감, 원근감 없이 나열하는 작업을 한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은 대체로 자연을 소재로 편안하고 따뜻한 시선을 선사한다. 작품이 가진 따스한 온기로 일상의 혼잡함과 고단함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온한 공간 속 사유의 시간을 통해 삶의 가치와 진정성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전시연계 프로그램 <나만의 정원>은 미술관에서 수집한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시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앞으로 성남큐브미술관은 전시와 더불어 더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일시 | 2월 16일~12월 22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문의 | 031-783-8142-9

PRE
VIEW

2024 성남작가조명전 1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

세상 밖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글 조한별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사진 최재우

성남큐브미술관은 지역작가들이 어려운 창작 환경 속에서도 예술가로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기 위해, 2015년부터 성남 청년작가와 중진작가들의 전시를 진행해 왔다. 오랜 시간 작가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온 성남큐브미술관은 올해 '성남작가조명전'으로 타이틀을 개편하고, 청년과 중진의 구분을 넘어 '작가' 본연의 정체성에 더욱 집중한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2024 성남작가조명전의 첫 그룹전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은 권순욱, 김건, 김광민, 김이연, 장지혜, 정한별(가나다순) 총 6명의 청년작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스스로의 내면을 치열하게 탐구한 지난한 여정을 선보이는 자리다.

2024 성남작가조명전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은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6명의 청년작가들은 기존의 사회적 프레임과 상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감정과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권순욱 '아름다운 세상'

권순욱 작가의 작품에는 세상에 대한 따뜻함과

애정이 담겨 있다.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물과 사람을 사유하는지를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창의성으로 풀어낸다.

작가의 작업은 추상화와 정물, 건축물을 소재로 한 일련의 연작으로 나뉜다. 특히 추상 작품은 그의 초창기 작업의 주된 형태로, 나이프로 물결 모양과 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면 전체를 덮는 전면 회화 방식이다. 아크릴 물감과 혼합 매체를 사용하여 굵은 횡렬의 선과 선 사이에 사각형 형태로 채워 가는 스트라이프 구성의 강한 질감은 정형화된 형태미에서 느낄



수 없는 미적인 쾌감을 전해 준다. 작가의 풍부한 감수성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고스란히 작품에 담겨 세상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창구로 작용한다.

정한별 '연결고리'

정한별 작가에게 예술은 세상과의 연결 고리이다. 작가는 '연결'과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동경하는 인물, 이슈들(여행, 파티, 작업)과 관련된 이미지를 수집하고 재구성하여 새롭게 화면에 담는다. 주로 작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나 가치 있다 생각되는 것들, 개인적인 이야기와 역사적인 소재들을 기록한다. 페인팅과 입체 작업을 주축으로, 작업물을 촬영하고 스캔해 디지털화한 뒤 가공하여 의류, 가구 등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물건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렇게 탄생한 물건들을 주변에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벤트(일상, 여행, 파티)를 기록해 다시 작업의 소스로 활용하는 '연결과 순환'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개인적인 경험과 역사적·문화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 세계를 확장해 간다.

김광민 '일기장'

김광민 작가의 작품은 자아의 발견과 탐구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이 마치 일기장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는 창작의 과정이 작가 자신의 경험에 바탕

을 두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과 깊이 속에 감성과 실험적 요소를 결합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안한다.

작가는 주로 아크릴을 사용하여 작업하는데, 커커이 레이어를 쌓고 블렌딩하여 시각적으로 몽환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색의 대비를 통해 생동한 입체감을 전한다. 하루에도 수백 번 지폐가 오가는 포스^{pos}기를 자신에게 투영하여 작업한 <집이 pos기같이 느껴지다>, 개개인의 사회적 가면을 '비닐봉지'라는 매체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어렵게 붓 떠 버린>을 보면 그가 일상적인 경험과 사물을 통해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장지혜 '동시대성'

장지혜 작가는 개인의 감정에서 출발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탐구한다. 작가는 핑크텍스¹, 임금체불, 노동 시간 초과, 그린워싱²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의 특징을 포착해 작품으로 표현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EAT THE PINK>는 화려한 색채와 대비를 강조한 스타일의 표현으로,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와 시각적인 유혹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을 반영한다.

<눈물 측정기>는 작가의 감정과 내면세계를 시

¹ 같은 제품이라도 남성용보다 여성용, 또 여성을 위주로 타기팅하는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현상

²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나 선전·홍보 수단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행위

각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슬픔'이라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마저도 '좋아요' 개수와 같은 숫자로 수치화시키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나의 감정은 온전히 나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김건 '원초적인'

김건 작가는 인간과 동물의 유기적인 관계성에 집중한다. 그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과 동물을 생명체라는 공통분모로 결합시키며 상호 작용을 통한 생태계의 균형과 파괴라는 모순적인 면을 드러낸다. 독특한 점은 작가의 작업 방식인데, 그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손가락으로만 만들어 낸 결과물이 <손가락 자국의 시선> 시리즈다. 원시 고대 벽화에 그려진 동물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시작한 작가는 작업 기법부터 원시적인 요소들을 차용하고자 했다. 손가락을 도구로 활용한 작업은 종종 직관적이고 순간적인 수밖에 없어서, 작가는 손가락을 사용해 물체를 형상화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유연하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김이연 '위안의 대상'

김이연 작가에게 자연은 위안을 받는 대상이다. 그는 일상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그들이 들려주는 일화, 혹은 성격, 분위기, 어투 등을 작가의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여 식물화한다. 식물화된 이미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 발견 일시, 위치 좌표, 서식지, 크기, 유

래, 특징 그리고 주의 사항을 함께 기록한다. 작가는 색연필로 총층이 색을 더해 가는 레이어링 기술을 통해 색의 투명도와 심도를 조절하며 작품에 깊이와 차원을 부여한다. 색연필을 활용해 연한 색상에서 어두운 색상까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색상 전환으로 색감의 조화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세밀한 디테일 표현과 작은 점과 선을 사용한 복잡한 텍스처의 구현으로 작품에 정교함을 더한다. 작품의 내용과 재료의 특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이 자체로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발현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6명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사유의 줄거리들, 신념과 가치, 개인의 경험,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놓았다. 이러한 아이덴티티들은 시간이 지나며 개인의 삶과 경험 그리고 다른 세계와의 소통 속에서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이룰 것이다. 지역의 장애인 작가와 비장애인 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한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참여 작가와 관람객 모두를 위한 바리어프리^{Barrier-free} 전시로 진행되며, 시각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작품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 성남작가모형전 1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

일시 | 2월 23일~4월 14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 031-783-8142-9

성남작가조명전 참여 작가 6인

예술을 통한 성장과 확장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사진 최재우

4월 14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2024 성남작가조명전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은 청년작가들의 예술과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권순욱, 김건, 김광민, 김이연, 정지혜, 정한별 작가가 말하는 저마다의 성장과 확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다.



권순욱 작가의 '아름다운 세상' 연작

권순욱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작품 속 면들의 공간은 무채색 면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빨간색의 면으로 번져 간다. 각기 다른 크기의 슬픔과 절망, 각기 다른 모양의 아픔을 이겨 낸 승리의 빛, 모든 어둠을 삼켜 버린 태양의 붉음이 서서히 드러나는 추상의 이미지 속에서 바로 선 자신을 찾는 시간, 그 속에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가 어둠을 비추고 온기를 불어넣는 선한 영향력의 결정체가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

<아름다운 세상 봄, 여름 가을>에서는 원활한 인간적인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진 '선'과 서로 다른 모양의 '면'을 배치했다. 생각들의 변화와 개개인의 마음속에 남은 어제의 기억들이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안정감, 익숙함, 연대감을 갖게 한다. 계절이 변할지라도...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와는 다른 너, 그들이 나를 받아 주고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에 감사한다.

나도 그들처럼... 사랑으로...



개인전 2017 제1회 권순욱 개인전(라메르갤러리, 서울) 2021 제2회 권순욱 개인전 <세상과 소통하는 작품>(미누현대미술관, 성남) 외
단체전 2022 Art Heal 인사동 감성미술제 <희로애락전> 2023 한국현대미술아트페어(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아름다운 세상 Season II >전(성남시청 누리홀) 외
수상 2022 제43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장려상,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회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은상, 아트코리아 미술대전 그린상, 2023 제44회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우수상 외

김건

공중의 미래

이번 전시에서는 '정체성의 확장'이라는 주제에 맞춰, '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는 나만의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는 작업들을 선택했다. 동물을 주제로 한 작업들은 나의 대학 3~4학년 시절,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겼던 시기에 세계 각국 동물원들의 온라인 사이트와 SNS 공식 계정 속 동물 사진들을 보며 드로잉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성남작가조명전>에 선보이는 작업들은 총 5점으로, 3학년 때 제작한 <기억의 혼잡> 연작과 4학년 시절 졸업 전시를 위해 제작한 <손가락 자국의 시선> 연작이다. <손가락 자국의 시선> 연작은 빙하 시대 원시 인류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내고자 자신들의 손을 붓으로 삼아 동굴 벽화를 그렸던 풍습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정면을 향한 동물들의 시선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미래를 고찰하기 위한 작품이다. 현재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인간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많은 동물종을 인기/비인기로 나누고 그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펼친다. 결국 이 어리석은 잣대로 인해 세계 각국이 동물 보호 정책을 펼칠 때 어느 종이 진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했는지에 대한 기억의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의 혼잡> 연작은 이러한 어리석은 상황을 나의 시각으로 비판하기 위한 작업으로, 앞으로도 동물을 주제로 한 작업을 멈추지 않고 이어 갈 계획이다.



학력 2022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예술대학 회화과
개인전 2023 초록바다의 기억: 상생(JM갤러리, 성남)
그룹전 2021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전시 2023 각양각색전(바른
세상병원 별관 바른아트센터, 성남)
활동 2024 과천미협 회원





김광민

이
상
현
상
관
객
의
여
정

이번 전시에서는 '이상적인 존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상을 위한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이기에, 이상을 좇다 보면 현실과 부딪치는 일도 생기곤 한다. 이 충돌은 그 강도에 따라 내가 이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이상은 이상하다. 반짝이며 밝게 빛나지만, 밝을수록 우리를 통곡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기도 한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추구하는 방향과 달리 안타까운 형태로 나타나 자신의 방향성을 정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그럼에도 주저할 수만은 없는 우리는 상상의 구렁텅이 속에서 이상 현상에 관해 파악하고 계산하기 시작한다. 모호한 자신에 대한 위치 파악을 위해, 타인을 계산하려 하며 사회를 체계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연구 끝에 발견한 자신은 재조합의 산물이며 누군가의 복제품, 혹은 가벼운 존재이기도 했다. 나의 열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암담한 결과였다.

나는 이러한 이상 현상을 작품으로 기록했다. 나의 고찰이 관객에게 반문교사가 되어 앞으로의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력 2023 가천대학교 서양화 학사 졸업
단체전 2023 '이'가 현재 위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보나르 갤러리, 하남),
야차(하나, 둘 갤러리, 서울) 2022 '소풍' 드로잉 프로젝트2(성남문화예술교
육센터, 성남) 외
협업프로젝트 2023 모란거리아트페어(모란5일장, 성남), 몽골교류전
<Beyond Dissemination>(울란바토르 국립예술문화대학교, 몽골) 외
수상 및 지원 2023 소년미술관 전시지원 장학금프로젝트(소년미술관, 시흥)

김이연

문화
평론

어떤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감정이 그토록 지속적인 것은 그 본래 형태에 있어 그것이 다른 모든 감정의 기원이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은유적일수록 점점 더 근원적인 감정으로 되돌아가 힘을 끌어오게 된다. 우리는 사실 자연을 잘 모르면서, 자주 보지도 않으면서 우선 사랑부터 한다. 근거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랑을 자연이라는 사물들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즉 어떤 자연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은 실제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과 사랑을 예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과 유형을 분석하고 식물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일화, 성격, 성향, 분위기, 어투 등을 작가의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여 식물화한다. 식물화된 이미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 발견 일시, 위치 좌표, 서식지, 크기, 유래, 특징 그리고 주의 사항과 함께 아카이빙한다. 이렇게 아카이빙한 식물들을 취합하여 식물 도감으로 제작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비가시적 특성을 식물이란 가시적 형태로 나타내는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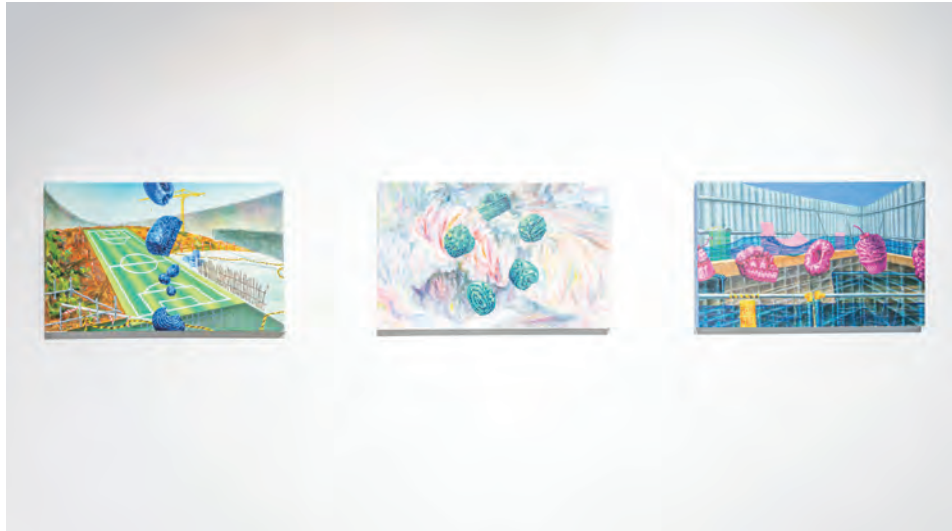
우리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또한 인간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서로 다른 개인을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학력 2024 가천대학교 회화-조소과(동양화 전공)
단체전 2019~2023 가천대학교 회화-조소과 교내전 9회(가천대학교 비전
타워 전시실) 2023 몽골교류전 <Beyond Dissemination>(울린바토르 국
립예술문화대학교, 몽골), 미포: 아름다운가게 프로젝트(성호임시시장, 성
남), 가천대학교 회화과 졸업전 <Greatuation>(인사 1010 갤러리, 서울)
2024 25.7(갤러리 보나르, 하남)



생각한다. 이번 전시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 또한 그렇다. 제목 그대로 우리는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찾아 보다 확고히 다져 가는 중이다.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확장하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작가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날은 평범하다면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때로는 커다란 불행이, 때로는 잔잔한 기쁨이 내 삶을 스쳐 갔다. 누군가는 무미건조한 삶이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지금에야 나는 그 말에 뻗속 깊이 공감하고 있다. 아무것도 직시하지 않으려는 눈과 회피하는 태도만 갖추면 누구든 건조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이스크림 위 체리를 골라 먹는 이기심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말이다. 옆집에 불이 나도 내가 타 죽지 않았으니 아무 일 없는 거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시위가 해체되어 지하철이 밀리지 않

장지혜

연대의 확장

으니 좋고, 주변 사람이 혐오 범죄에 노출되어 큰 상해를 입어도 개인의 태도로 책망하고 넘기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이야말로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다. 고품 소리를 무시하고 피 터지는 광경을 못 본 체하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나의 지난날이 그토록 평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발 아래 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를 짓누르는 체제를 몰랐다. 미술의 시작은 '나'를 관찰하는 데에서 출발했기에 나의 행복과 불행에만 집중하며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서 벗어나 타인과 사회를 보는 작업은 세상과 시대에 연결할 수 있는 동시에, 검열과 주장에서 위태롭다. 회피는 시야를 좁히기에 그 아래 깔린 것들을 무시한 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달리고 성장하기 위해선 어렵더라도 타인을 마주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의 작업은 나와 가까운, 또는 아주 멀리 있는 타인과 연결되고 연대하고픈 마음을 심어 둔 작업이다.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 전시 제목처럼 사람은 고도를 높여 가는 존재가 아닌 확장하는 존재이니 말이다.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면 그 길은 걷고 싶지 않다. 넓고 넓은 바다처럼 타인과 함께 뻗어 가고 싶다.



학력 2024 가천대학교 회화-조소과
단체전 2024 '이(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보나르 갤러리, 하남) 2023 각양각색전(바른세상병원별관 바른아트센터, 성남), ASYAAF & Hidden Artists Festival(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STUDIO 732-75'(studio HEIRLOOM, 서울) 2022 '소풍' 프로젝트3 - 통일촌 놀이터(DMZ 문화예술공간 통, 경기 파주 DMZ) 외

정한별

연결과 순환

연결 - 순환. 미디어, 가족, 친구, 이벤트(파티, 여행, 전시), 산책, 시간, 공산품, 동물... 일상 속 키워드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연계하며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순환된다. 현 시점의 우리는 그 연결과 순환의 산물이다. 나는 예술과 생산의 역할자로 수많은 상호 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한다. 생산한 이미지를 2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또 다른 연결로 순환시키며, 일상 속 연결점을 위한 오브제와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제 막 학부 생활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우리의 연결과 순환의 이야기는 아직 출발 단계라, 현재 생산하는 이미지는 대부분 나 자신의 기호와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작업을 하는 시간인 <11시>, 개인적 기호와 경험을 재구성한 <Folder1>, 미디어에 대한 시각을 담은 <맹수 같은 미디어의 속도>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그로 인한 새로운 상호 작용, 확장을 기다리고 있다. 전시 주제인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 작업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된 이미지는 나만의 것, 나만의 작품이 아니다. 공유와 소통 과정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김을 느낀다. 전시 기간 중 소통에

집중하며 상호 작용을 통한 성장과 다양한 에너지를 포착하고, 그 에너지가 새로운 이미지, 또 다른 소통의 매개가 되길 바란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더 많은 이들이 연결되고, 생산된 이미지는 점차 우리 이야기의 반영으로 변화할 것이다.

정한별, 11시, oil on canvas, 242.4 x 162.2cm, 2023



학력 가천대학교 회화과

개인전 2022 It's already eleven(문래 예술도시) cafe fiftyfour(문래 예술도시)

단체전 2024 25.7(갤러리 보나르, 하남) 2023 몽골교류전 Beyond Dissemination(울란바토르 국립문화예술대학, 몽골), Tri-Angle(성수 MOVE·MOV), STUDIO 732-75(studio.HEIRLOOM, 서울) 2022 Art Ready Together(문래 Space9 갤러리) 외



2024

SEASON

성남아트센터
2024 시즌 하이라이트

SEASON 2024

파 프롬 더 노름 <블랙독>
Far From The Norm <BLKDOG>
6.22.Sat ~ 6.23.Sun | 오페라하우스

<발레 스타즈>
<Ballet Stars>
7.13.Sat | 오페라하우스

중국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 <백조의 호수>
Xi'an Acrobatic Troupe <Swan Lake>
8.23.Fri ~ 8.25.Sun | 오페라하우스

존 엘리엇 가디너 &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베토벤 교향곡 4번 & 5번
Sir John Eliot Gardiner & Orchestra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
<Beethoven Symphony No.4, No.5>
10.9.Wed | 콘서트홀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나그네>
Baritone Matthias Goerne &
Pianist Maria João Pires
F. Schubert <Winterreise>
10.26.Sat | 콘서트홀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Universal Ballet <The Nutcracker>
11.29.Fri ~ 11.30.Sat | 오페라하우스

BRAND SERIES

2024 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
2024 Matinée Concert
3.21 / 4.18 / 5.16 / 6.20 / 7.18 / 8.22 / 9.19 /
10.17 / 11.21 / 12.19. Thu | 콘서트홀

2024 연극만원 시리즈 '예술가들의 이야기'
2024 SNART's Play Series
3~9월 | 앙상블시어터

문의 | 031-783-8000

SNART



트렌드 1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미래

트렌드 2

팝업 스토어 전성 시대

시네마 클래식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와
드뷔시의 '달빛'

아티스트 픽

이럴 땐 이런 앱

장애인 예술

경계와 쟁점 다각도로 바라보기

생활 속 디자인

요리 도구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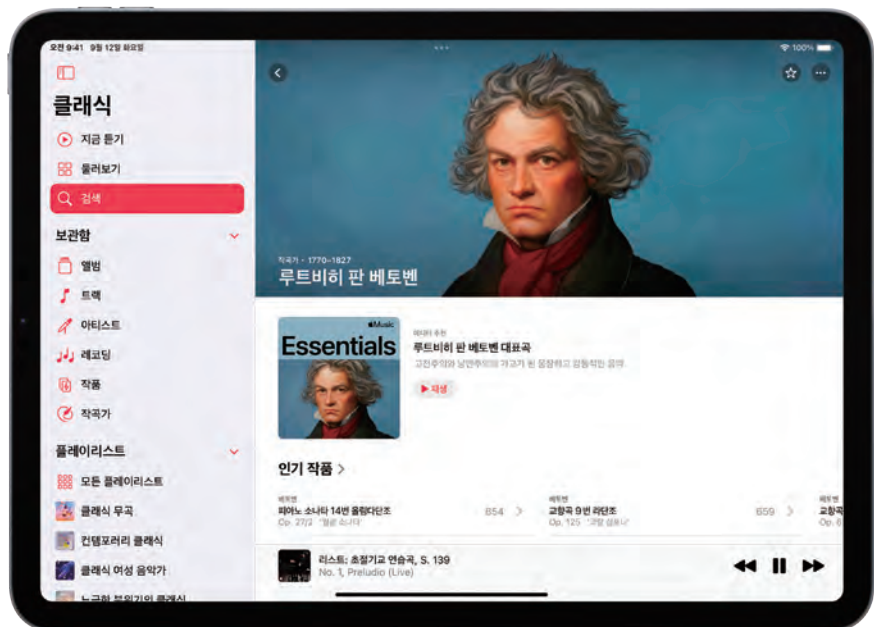
CULTURE +

SEASON 2024

SNART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미래

애플 뮤직 클래식, 클래식 감상의 새 시대 열까?



© APPLE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한 이래 소리를 저장하는 매체는 꾸준히 바뀌어 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클라우드’라 불리는 인터넷 저장소의 음악을 전송하고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 1월, 애플의 클래식 전용 음악 감상 앱인 애플 뮤직 클래식(Apple Music Classical)이 드디어 국내에도 정식 출시된 가운데, 애플 뮤직 클래식이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구축할 수 있을지 들여다본다.

애플은 스포티파이(spotify)의 경쟁자였던 비츠(Beats) 음악을 인수해 2015년에 ‘애플 뮤직’을 선보였다. 2021년에는 클래식 음악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포닉’을 인수해 이듬해 ‘애플 뮤직 클래식’을 내놓았고, 2024년 1월 24일부터 한국에서도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 뮤직이 처음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것은 2016년으

로, 애플 뮤직 클래식은 기존의 애플 뮤직과 별개의 서비스가 아니라 같은 백엔드(backend, 즉 ‘엔진’)에 별개의 앱을 사용해 사용자경험을 분리해 낸 것이다. 그래서 애플 뮤직 구독자는 애플 뮤직 클래식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애플 뮤직이 클래식 음악을 따로 분리한 것은 클래식 음악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메타데이터(metadata) 때문이다. 즉 연주자와 작곡가가 분리되고, 교향곡·협주곡·소나타 등의 제목으로 여러 작곡가의 다양한 작품이 있으며, 그것이 또 여러 악장으로 나누는 등의 특성 때문에 기존 애플 뮤직으로는 원하는 음악을 검색하는 데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애플 뮤직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닌 데다가 그나마 애플 뮤직이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교해 단점이 덜하기도 했다.

애플 뮤직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 1위가 아니다. 클래식 음악에 한정하면 이 다지오(DAGI)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글쓴이는 애플 뮤직과 특히 애플 뮤직 클래식이 시장의 판도를 결정하는 위치를 굳힐 것으로 예상한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애플의 도전: 비주류에서 주류를 꿈꾸다

첫째, 애플 뮤직이 확보한 음원의 방대함이다. 통계의 함정이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내세우는 대신,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징후적인 사건들을 거론하겠다. 애플은 2016년에 경쟁 스트리밍 업체인 ‘타이달’의 인수를 시도한 일이 있다. 2017년에는 음반사 낙소스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클래식스 온라인’ 사업을 중단했다. 공식적



© APPLE

인 사업 중단 이유는 기술 제휴사가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2023년에는 애플이 클래식 전문 음반사 BIS를 인수했다.

무엇보다도 애플 뮤직 클래식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열 콘서트허바우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파리 국립 오페라, 카네기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유명 연주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공연 실황 음원을 일정 기간 독점 서비스하고 있다.

공룡 기업인 애플은 음반사와 경쟁 스트리밍 업체를 가리지 않고 인수할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음악 스트리밍과 관련해 애플의 진짜 경쟁자는 음악 산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술 기업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애플만큼 음악 산업에 진지한 태도를 보여 준 기업은 없으며, 클래식 음악에 한정하면 더욱 그렇다. 둘째, 애플 뮤직은 ‘돌비 애트모스 Dolby Atmos’라는 새로운 기술을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돌비 애트모스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가변 16채널 오디오’다. 모노 녹음과 스테레오 녹음이 완전히 다른 청각 경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비 애트모스로 녹음된 음악을 올바른 재생 장치로 들으면 기존의 스테레오(즉 2채널) 음원과는 차원이 다른 청각 경험을 할 수 있다.

멀티채널 오디오 기술이 나온 것은 수십 년 전이며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나온 것은 2012년이다. 그러나 미디어 업계는 멀티채널 녹음을 도입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소비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2021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애플 뮤직이 돌비 애트모스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사실 이전에도 돌비 애트모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있었으나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애플이 나서면서, 음반사들은 앞 다투어 돌비 애트모스로 녹음된 음원을 내놓거나 기존 음반을 돌비 애트모스로 리마스터링해서 내놓기 시작했다.

돌비 애트모스 녹음을 재생하려면 멀티채널 오디오와 더불어 이른바 ‘사운드 오브젝트 Sound Object’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리시버)가 필요하다. 오늘날 TV에 흔히 연결해 사용하는 사운드바, 또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이어폰·헤드폰 종류로도 제한적으로 돌비 애트모스 재생이 가능하다(다만, 이어폰·헤드폰으로 재생하는 돌비 애트모스는 공간감을 위해 전체적인 음질을 희생하는 주객전도가 될 수 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어폰·헤드폰으로 재생하는 돌비 애트모스는 물리적인 2채널 스피커에 소리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등의 기술로 가상의 멀티채널 오디오를 구현한 것이다. 즉 채널당 정보량을 희생한다).

셋째, 애플이 구축한 기술 생태계에서 오는 편리함이다. 애플 뮤직 또는 애플 뮤직 클래식을 이용하려면 애플에서 만든 재생 기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플에서 만든 기기로 애플 뮤직을 이용하는 것과 다른 기기로 이용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경험만을 짧게 소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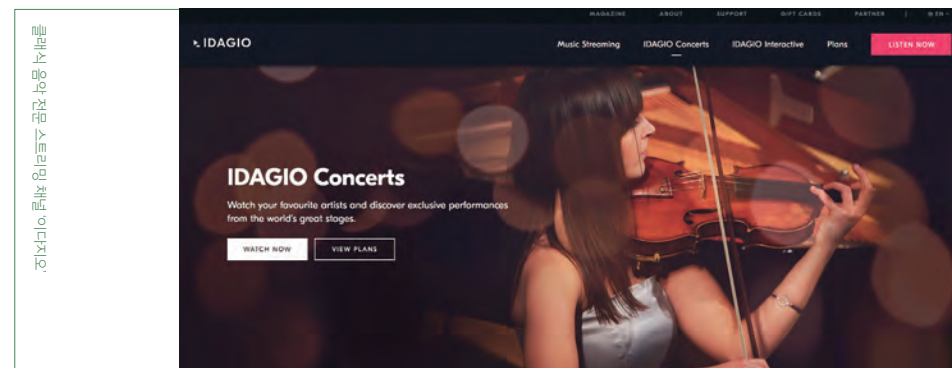
내가 사용하는 전화기, 손목시계, 태블릿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 오디오와 TV 셋톱박스 등은 모두 애플 제품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아이폰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애플의 오늘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도 2년이 지난 2013년부터였고, 애플 컴퓨터의 사용은 2015년에 나온 애플 뮤직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기기의 시너지 효과를 경험한 이후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국내에도 유의미한 숫자로 존재한다.

글쓰이는 애플 뮤직 외에도 스포티파이, 타이달, 코부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유튜브 뮤직, 클래식 음악 전문 서비스인 이다지오, 그리고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홀과 메디치TV 등을 사용해 보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구체적인 비교를 하지는 않겠다. 특정 기업이 구축한 테크놀로지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리는 평가가 공정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서비스는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으므로 직접 경험해 보고 판단하기 바란다. 사람에게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가상현실 기술이 대중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베를린 필하모닉홀과 무지크페라인잘과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공연 실황이 가상현실 형태로 실황 중계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애플은 최근 ‘비전 프로’라는 고글 형태의 제품을 출시했다. 미래가 멀리 있지 않다.

글 김원철 음악 칼럼니스트

통영국제음악재단 홍보마케팅팀 소속, 주요 출판물로 『오페라 속의 미학』(음악세계, 2017) 중 ‘물결치는 사랑과 바그너식 열반: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연주 분석에 바탕을 둔 학술적 연주비평 가능성 모색: 정명훈이 지휘한 2006-2009 서울시향 정기연주회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등이 있다.



· 인터디지탈, 태블릿, 스마트워치, 스마트시계



김서민경 디자인 칼럼니스트, 건축대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로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한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디자인과 큐레이팅을 전공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거쳐 월간 <디자인>에서 에디터로 일했다.

팝업 스토어 전성 시대 브랜드 메시지를 전파하는 발신 기지가 되다

글 서민경 디자인 칼럼니스트
 건축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로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한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디자인과 큐레이팅을 전공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거쳐 월간 <디자인>에서 에디터로 일했다.



© 시몬스

© 시몬스

‘땡처리’ ‘오늘만 이 가격!’ 길을 걷다 보면 글씨가 커다란 현수막을 내건 단기 임대형 매장을 종종 마주치게 된다.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계약 기간만큼의 금액을 선납하고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을 부동산 은어로 ‘깎세’라고 한다. 임대료를 미리 깎아 놓고 장사한다는 의미다. 오늘날 기업과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도 일종의 깎세 점포다.

리테일 미디어로서의 팝업

건물에 공실이 생기면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다. 이때 임대 기간을 최소 10년 동안 보장하며, 임대료 또한 연 5%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깎세의 경우,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건물주는 부르는 만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공실에 대한 리스크만 감수한다면 장기 임대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아진다. 성수동 곳곳 빈 점포 1층에 ‘팝업 임대’ 현수막이 나부끼는 이유다.

그렇지만 ‘땡처리’ 깎세와 팝업 스토어를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는 법이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영길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은 팝업 스토어가 공간과 매체가 결합된 채널이라는 점에서 ‘리테일 미디어’라고 이야기한다. 기업이 별도의 광고료를 지

불하지 않아도 팝업 스토어에 방문한 이들은 각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이나 영상을 업로드한다. 개인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이 흥미로운 팝업 소식을 알리는 광고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팝업 스토어의 공식 오픈일 전날 열리는 ‘VIP 데이’에 초청되는 이들은 주로 인플루언서들이다. 온라인상에서 파급력이 높은 이들의 인증샷이 팝업 스토어의 흥행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팝업 스토어를 전문적으로 큐레이션해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혹은 ‘성수동 추천 데이트 코스’ 같은 제목으로 팝업 스토어 여러 곳을 큐레이션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보면 사진 속 이미지가 인스타그램어블할수록 ‘좋아요’ 수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스타그램어블 instagramable’이라는 신조어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의미다. 전 세계에서 1분당 65,000여 장의 이미지와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시선을 잡아끄는 이미지에 붙이는 일종의 수식어인 것이다. 신제품을 테스트하고 구입할 수 있는 단기 매장의 형태를 넘어 팝업 스토어가 미술관의 전시 형식을 차용하면서 인스타그램어블한 이미지도 범람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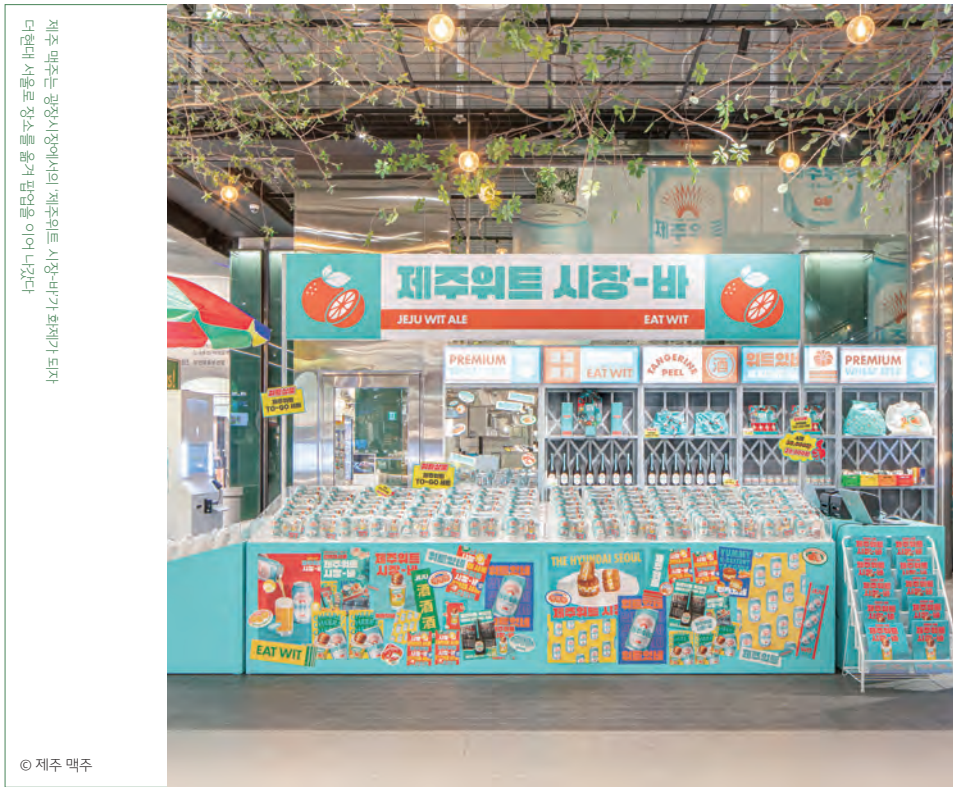


팝업 스토어는 미술관 전시 형식을 채택해 신제품 테스트와 구매를 위한 인스타그램어블한 이미지도 중요시되는 트렌드로 나타났다.

© 탬버린즈

2021년 탬버린즈는 핸드크림 ‘더 코쿤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 거대한 누에 형상이 꿈틀거리는 키네틱 오브젝트를 전시장 한가운데에 설치했다. 한편 2022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운영한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은 침대 없는 침대 브랜드 팝업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사쿠테리 숲을 콘셉트로 선보인 굿즈도 인기였지만, 공간의

한 층을 전부 디지털 아트를 상영하는 전시 공간으로 할애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단순한 동작을 반복해서 보여 주는 브랜드 캠페인 영상 시리즈를 감상하며 ‘멍 때리기’를 제안한 것이다. 시몬스는 이를 통해 팬데믹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힐링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팝업 스토어는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단순 ‘소비’가 아닌 일종의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만족감을 선사한다. 미술관 전시는 난해한 예술 작품으로 가득하지만 팝업 스토어 전시는 쉽고 재미있으며 셀카가 잘 나오는 포토 스팟까지 갖추고 있으니 금상첨화인 셈이다.



제주 맥주는 광장시장에서의 ‘제주윗 시장-바’가 화제가 되자 더현대 서울로 전수를 꿈꾸며 팝업용 이미지를 내놨다.

© 제주 맥주

팝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한정된 기간에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희소성은 MZ세대의 발길을 팝업 스토어로 이끈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Z세대 트렌드 2023’에서 팝업 스토어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다른 공간을 방문해 시간을 보내는 현상에 주목하며 ‘0차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일종의 공간 트렌드로 소개했다.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장소

주변의 볼거리 또한 대중들은 팝업 스토어를 갈지 말지를 결정짓는 요소로 고려한다는 뜻이다. 성수동이나 더현대 서울이 팝업 스토어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는 이유가 0차 공간을 통해 설명이 된다. 성수동에 카페, 맛집 등 들린 공간이 많을수록 팝업 스토어는 활개를 친다. 마찬가지로 2021년 오픈한 더현대 서울 또한 거대한 실내 정원 '사운즈 포레스트'를 조성하고 총마다 인기 있는 F&B 브랜드를 큐레이션함으로써 기존 백화점의 문법을 탈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성수동에서는 53건, 더현대 서울에서는 160여 건의 팝업이 열렸다.

팝업 스토어에서 '체험'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시각은 물론 오감을 골고루 자극할수록 더욱 강렬한 인상이 뇌리에 남는다. F&B 브랜드가 팝업 스토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22년 성수동 프로젝트 렌트에서 열린 가나 초콜릿 하우스는 1975년 가나 초콜릿이 국내 첫 출시되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1675년 영국 사교 클럽이 모이던 초콜릿 하우스라는 콘셉트로 조성한 팝업 공간이었다. 유명 셰프들이 제안하는 가나 디저트 페어링 바를 운영하는 한편, 가나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클래스를 마련해 화제가 되면서 이듬해 부산에서도 동일한 팝업 공간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 맥주는 팝업 스토어의 성지인 성수동을 벗어나 광장시장이라는 의외의 장소에서 '제주위트 시장-바'를 열었는데 장소성을 십분 활용해 로컬 콘텐츠를 촘촘하게 엮어 낸 기획이 돋보였다. 광장시장 상인들과 협업해 빈대떡과 약과 등 일명 '할매니얼' 트렌드를 콘셉트로 한 꼬치를 선보여 제주 맥주와 페어링을 제안한 것은 물론, 시장 내 다른 점포의 음식을 자유롭게 구입해서 제주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 맥주 팝업 스토어 또한 3주간 5만여 명이 몰리면서 화제가 되자 더현대 서울로 장소를 옮겨 팝업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떠들썩한 잔치가 끝난 자리에 남겨진 폐기물은 팝업 스토어의 어두운 이면이라 할 수 있다.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10평 내외의 매장을 철거하는 데 보통 1톤가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한다. 팬데믹 이후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팝업 스토어에서 한번 사용하고 철거되는 각종 건축 자재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2022년 매일유업은 '어메이징 오프카페' 팝업 스토어에서 버려지는 볏짚을 활용해 인테리어 구조물과 의자를 만들었다. 슈퍼말차는 디자인 스튜디오 포스트스탠다즈와 협업해 팝업 스토어의 구조물을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모듈 시스템으로 대체했다. 스테인리스 모듈로 기본 구조를 세우고 슈퍼말차를 상징하는 초록색 타폴린 천으로 벽면을 구획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브랜드의 노력은 팝업 스토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슈퍼말차는 디자인 스튜디오 포스트스탠다즈와 협업해 팝업 스토어의 구조물을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모듈 시스템으로 대체했다.

매일유업은 버려지는 볏짚을 재활용한 구조물과 의자를 만들었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²⁰²²

감독 다니엘 쿼, 다니엘 세이너트 출연 미셸 여, 스테파니 수, 키 호이 콰 외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와

드뷔시의 '달빛'

기발하고 유쾌하게, 경계를 허물다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비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씨네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 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워터홀컴퍼니

“큰 꿈을 꾸세요. 그 꿈이 실현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 ‘전성기가 지났다’는 말을 결코 믿지 마세요!”

2023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 말레이시아 배우 미셸 여(楊紫瓊) 양자경가 여우 주연상 트로피를 거머쥐고서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 배우로는 여우 주연상 첫 수상이었다. 미셸 여의 수상 소감은 전 세계 여성들을 향한 따스한 응원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1980년대 홍콩 영화의 전성기에 미셸 여는 <예스 마담> 시리즈 같은 호쾌한 액션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장만위(張曼玉)와 왕쭈셴(王祖賢) 같은 여배우들이 청순가련형의 이미지로 사랑받았다면, 미셸 여는 걸크러시의 원조라고 해도 좋을 만큼 거침없고 당당한 액션을 선보였다. 장만위와 왕쭈셴에게 ‘여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면, 미셸 여는 언제나 ‘여걸’이라는 말이 어울렸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 영화인들의 운명도 기로에 섰다. 중국에 반환된 홍콩의 운명처럼 중국 영화계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할리우드 도전의 기회로 삼거나. 미셸 여는 후자를 택했지만, 할리우드 데뷔작이었던 <007 네버 다이>¹⁹⁹⁷의 본드 걸 역할이 보여 주듯 틀에 박힌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007 네버 다이>와 <와호장룡> 이후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미셸 여에게 뒤늦게 아카데미 트로피를 안겨 준 작품이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이하 '에에올')다. 이 영화에서 미셸 여는 미국으로 이민 온 뒤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여주인공 에블린 역을 맡았다. 초반부터 에블린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와 남편의 이혼 요구, 대학을 자퇴하고 뼈뺌하게 구는 딸 때문에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인생 경로도 과연 가능할까.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에블린은 우연히 탈출구를 발견하고서 엉겁결에 뛰어든다.

이렇듯 영화는 다양한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중 우주(멀티버스)'의 세계관을 평범한 중국계 이민 가정에 적용하는 기발한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일상과 환상이 마구잡이로 뒤엉키는 초반 설정은 1999년 영화 <매트릭스>를 연상시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다차원의 세계는 <어벤져스> 같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닮았다. 배경은 지극히 소시민적이고 일상적인데 뒤이어 일어나는 상황들은 초현실적이고 우주적이다. 이 기묘한 간극이야말로 이 영화의 핵심적 매력이다.

<에스 마담>과 <와호장룡>의 액션 스타 미셸 여가 아니었다라면 자칫 이 영화의 재미는 반감될 뻔했다. '에에올'은 삶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화려한 쿵푸 스타가 됐을 것이라는 자기 언급적 설정을 통해서 배우의 전작들을 패러디한다. "그 모든 거절과 실망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어. 그것만은 잊으면 안 돼" 같은 대사들도 미셸 여의 실제 삶과 겹치면서 더 큰 공감을 자아낸다.


남루하지만 특별한 그들의 일상

영화에 흐르는 피아노곡이 프랑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¹⁸⁶²⁻¹⁹¹⁸의 '달빛(Clair de lune)'이다. 곡의 제목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폴 베를렌의 동명¹⁸⁶⁶ 시에서 가져왔다. 랑랑이나 조성진 같은 인기 피아니스트들이 앙코르로 즐겨 연주하는 곡으로도 친숙하다. 흡사 '달콤한 인상주의' 같은 독특한 곡의 매력은 오히려 인기 요인이 됐다. '에에올'은 다니엘 관과 다니엘 셰이너트 두 감독이 공동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다니엘 관은 홍콩계 아버지와 대만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다니엘 셰이너트는 미국 앨라배마 토박이다. 보스턴의 에머슨 칼리지 동창인 이들은 뮤직 비디오를 공동 연출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영화와 드라마로 영역 확장에 나선 이들은 2016년 장편 데뷔작인 <스위스 아미 맨>으로 선댄스 영화제 극영화 부문 연출상을 받았다. 이들의 두 번째 공동 연출작이 '에에올'이다. 이 영화로 전 세계적으로 1억4100만 달러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고, 아카데미 7관왕을 비롯해 260여 개의 크고 작은 영화상을 휩쓸었다. 영화 제 목처럼 '모든 건everything 어디서든everywhere 한꺼번에all at once' 일어난 것이다.

이 영화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마블 시리즈의 이색적인 변외편으로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딸의 좌충우돌 성장기로도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화려한 액션과 특수 효과, 자유롭게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중 우주'의 설정을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의 남루한 일상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와 가장 닮은 작품은 어쩌면 배우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안겼던 <미나리>일지도 모른다. '에에올'의 중국계 이민자 가정이 세탁소를 운영할 때 <미나리>의 한국계 가족은 병아리 감별사로 고단하게 일하는 정도가 차이다. <미나리>의 일상적 주제를 <매트릭스>와 <어벤져스>의 우주적인 방법론으로 다룬 것이야말로 이 영화의 숨은 매력이다.

우리는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암암리에 선을 긋는 성향이 있다. 우아한 고급문화와 저속하고 통속적인 대중문화, 주류 지향적인 트렌드와 마니아층에 호소하는 비주류적 감수성 같은 이분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에에올'은 이런 이분법을 유쾌하게 허무는 성공 사례다. 얼마나 별나고 엉뚱하고 괴상망측하게 묘사하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주제의 보편성은 여전히 예술의 중요한 화두인 것이다.



드뷔시 피아노 작품집
조성진(피아노), DG, 2017(CD)

왜 독일이나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였을까.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파리 유학길에 올랐을 때 문득 들었던 의문이었다. 2018년 드뷔시 서거 100주기를 맞아서 <영상> 1~2집과 <어린이차지>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등 피아노 독주곡을 녹음한 이 음반은 그 답변과도 같다. 조금만 기색 없는 템포 설정과 영민한 감정 조절, 음색에 대한 탐닉과 점묘법에 가까운 세밀한 묘사까지 조성진의 장기가 유감없이 드러난다.

이런 땐 이런 앱

What's in my phone? 지휘자 최수열

누구보다도 섬세한 감각과 영감으로 가득한 예술가들. 그들의 스마트폰 안에는 어떤 앱이 자리하고 있을까? 지휘자 최수열의 최애 앱 들여다보기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아이폰을 써오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첨단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는 남들보다 비교적 단순한 제 삶의 방식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평소 일과는 연주를 위한 준비-연주-휴식 정도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일을 위한 메모, 산책과 라디오 등의 가벼운 취미를 위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What's in my phone?”

메모와 일정 관리

아이폰에 기본으로 내장된 ‘메모’와 ‘음성메모’만으로도 업무와 일정 준비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일정 관리 앱도 여러 종류를 사용해 봤는데, 그중 ‘빨간달력’이라는 무료 앱을 활용하고 있어요. 일정 기록이 단순하면서도 전체 일정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편입니다.

일상 속 산책

일상 속에서, 또 여행이나 출장에서 저는 늘 산책을 즐깁니다. ‘Pacer’라는 앱으로 오늘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확인하곤 하죠.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최근 1년의 제 평균 걸음 수를 손쉽게 체크할 수 있고, 움직인 거리와 경로 등도 매우 간단히 살펴볼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유료로 전환하면 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광고가 자주 뜨긴 하지만, 저는 굳이 그 정도 기능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터라 이 정도도 만족스러워요.

이런 땐 이런 음악

클래식을 전공하지만, 일하지 않을 때에는 의외로 클래식 이외의 음악들을 많이 들어요.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하는 KBS 클래식 FM의 저녁 6시 ‘세상의 모든 음악’이나 90년대 발라드가 많이 선곡되는 CBS 음악 FM의 밤 10시 ‘꿈과 음악 사이에’는 제가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집에서는 아날로그 라디오로 들어야 제 맛이긴 하지만, 요즘은 KBS KONG이나 CBS 레인보우 앱으로 이동할 때나 해외에 있을 때에도 들곤 합니다. 멜론도 자주 이용하죠.

본업에 충실할 땐

‘Simple Metronome and Tuner’라는 메트로놈 앱은 음악의 템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트로놈 앱의 기능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탭하여 템포를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 앱은 그런 면에서 사용이 수월합니다.

글 최수열 지휘자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를 거쳐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2017-23)으로 일했고, 2021년부터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아카데미하고 창의적이면서도 대담한 프로그래밍 감각, 현대 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돋보이는 지휘자로 국내외 주요 오케스트라와 활발히 작업하고 있다.

경계와 쟁점 다각도로 바라보기

장애인예술에 관한 이런저런 물음들

글 **전종현** 디자인·건축 저널리스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RA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월간 <디자인> <SPACE 空間> <노블레스>에서 에디터로 일하며 디자인매거진 <CA>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다양한 칼럼을 썼다. 주거 건축을 다루는 <브리크> 부편집장, 편집위원을 지냈고 2021년부터 3년간 <기아 디자인 매거진> 창간과 콘텐츠를 총괄했다. 현재 디자인, 공간, 건축, 예술에 대해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며, 문화예술 매거진 <비애티튜드> 편집장을 맡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아트 붐이 펼쳐지고 있다. 미술품의 경매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아트 페어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취향 있는 공간을 꾸밀 때 자신만의 아트 컬렉션을 구비하는 게 일종의 상식이 됐다. 이런 아트 대교양의 시대에 새롭게 관심을 끄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장애인예술이다. 우리는 장애인예술에 대해 떠올릴 때 반사적으로 장애인이 창작한 작품을 생각한다. 그런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장애인예술이 생각만큼 명쾌히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게 된다. 장애인예술을 다각도로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애인예술의 주체

무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일이 급선무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예술은 그 시작부터 난감하다. 국제적으로 장애인예술과 장애예술,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에서는 장애인예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에 사용하던 장애인문화예술이란 용어가 발전해 장애인예술로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장애인예술 활동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그 공감대 또한 폭이 넓어지면서, 장애인예술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장애인예술을 단선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사회적 시선의 해상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모양새다.

개인적으로 '장애인예술의 주체는 누구인가?'란 물음을 먼저 던져 본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을 것이다. 장애인예술이란 용어가 '장애인+예

술'인데 당연히 장애가 있는 사람 전부를 포괄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예술은 그 주인공으로 꽤나 명확히 특정 대상을 지칭한다. 바로 장애예술인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즉 장애예술인은 법적으로 장애가 있는 직업 예술인을 지칭한다.

장애예술의 감동 포인트

장애예술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대환영이다. 그런데 명심할 점이 있다. 전문 예술인은 주체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그 직접적인 향유자로 보편적인 시민 모두를 포괄한다. 그럴 때에만 전문예술인의 개념이 성립한다. 다소 무례할지도 모르지만, 이번 글의 핵심이므로 용기 내어 질문해 본다. 장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을 평등의 눈으로 완고하게 바라보는 건 비인간적일 수 있으며, 공평의 눈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 shutterstock



장애예술인의 작품에서 시민들이 감동하는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 장애예술인이 비장애예술인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 성찰,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비장애예술인의 작품 못지않은 완성도를 갖기 때문인가. 만일 후자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응원하는 거라면 이는 꽤나 큰 문제다. 예술의 매력은 대중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의문을 던져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성찰에 있지, 전문가적 퀄리티를 구현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갖춘 소수의 장애예술인보다 그렇지 않은 장애 예술인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다(이는 비장애예술인도 마찬가지다). 만일 장애 예술가의 자기 서사와 목소리가 아니라 기존 예술 작품에 상당하는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환호한다면, 이는 예술이란 미명 아래 장애인을 소수자로 억압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단적으로, 지적장애인을 모아 피나는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을 선사한 무대에 대해 어떤 사람이 장애인의 내적 성찰과 자의식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물음을 제기한다고 치자. 이때 ‘힘들게 연습한 친구들에게 왜 이러냐? 정 없게’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장애예술인을 호혜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방증이다. 장애인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장애인예술을 돕는 사회적 장치와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호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장애예술인의 경계와 쟁점

앞서 말한 장애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가져와 보자. 예술 활동을 직업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장애인은 장애인예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문가에 속하지 않은 시민 예술적 개념의 장애인들은 장애인예술의 주체가 될 수 없을까? 장애인예술도 예술이고 장애인예술도 직업적인 예술인이다. 여기에 예술과 예술인을 바라보는 요즘 관점과 반응을 소환해 그대로 대입하면 꽤나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 과연 지금 시대에도 전문 예술인과 시민 예술인을 무 자르듯 경계 짓고 있을까? 만약 예술 활동을 하는 비장애인에게 ‘혹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은 예술인이신가요?’라고 물어보면 욕을 무더기로 먹을 것이다. 예술인인지 아닌지 판결하는 기준에 대해 성토하면서 ‘자기표현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 모두가 예술인이지 어디서 옛날 옛적 아카데미즘 얘기를 하나?’라는 항의를 받을 테다. 그런데 이런 잣대가 장애인 예술인을 바라볼 때에만 비껴간다면 참으로 난감하다. 예술을 시도하는 장애인 모두가 장애인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작년 12월 29

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출범한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장애예술인 지원에만 올인하는 계획이 사뭇 걱정스러운 이유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쟁점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다. 우리나라 법률 중 장애에 대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다. 법적으로 장애인이 되려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게 필수다. 만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더라도 등급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장애인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맨눈으로 봐도 아주 명확한 절단 장애일지라도 엄지손가락이 아닌 다른 손가락으로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이 각각 두 마디 이상 절단되어야 한다. 운 좋게 한 마디만 절단된 사람은 장애에 대한 트라우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기타리스트가 사고로 인해 장애 등급에 미치지 못하게 손가락이 잘린 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한다면, 그는 장애예술인인가, 비장애예술인인가?

평등보다 공평의 시선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점점 더 포괄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사회적 장애까지 포괄한다.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만약 여기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함 없는 존재가 아니며, 이런 존재론적 장애에 대한 자기 성찰이야말로 예술의 원동력이자 존재 이유’라는 의견까지 넣는다면, 장애인예술을 바라보는 혼돈이 끝나지 않는다.

물론 분명히 말하건대, 존재론적 장애와 법적 장애는 명백히 다르다. 법적 장애는 삶이 끝날 때까지 안고 가야만 하는 가혹한 숙명이다. 장애인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을 평등(equality)의 눈으로 완고하게 바라보는 건 비인간적이며, 공평(equity)의 눈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던진 여러 의문을 곱씹으며 장애인예술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셈이다. 그런 단선적인 태도가 장애인, 장애인예술인, 장애인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충돌하고, 깨지고, 재구성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의 터전을 마련할 것이므로.

요리 도구의 역사

부드러운 음식을 향한 열망

사람과 동물이 먹는 음식의 가장 큰 차이는 가공의 유무에 있다. 동물은 초식이든 육식이든 낱것 그대로를 먹는다. 그러니까 동물의 이빨은 낱것을 씹고, 사람의 이는 부드럽게 가공된 것을 힘들이지 않고 씹는다. 사람이 음식을 씹는 신체 부위를 '이빨'이 아닌 '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노동의 강도가 좀 더 약하고 우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빨이 아니라 이가 되려면 음식의 원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인류 디자인의 역사는 어쩌면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을 부드러운 문명의 이로 진화시켜 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익혀 먹기와 인간

현대인은 과일이나 부드러운 야채만 빼고 거의 완벽하게 가공된 음식만 먹기 때문에 과거 인류가 음식을 먹는 데 얼마나 큰 에너지를 쏟았는지 잊은 지 오래다. 인류에게 먹는 일이란 고역이었다. 그들은 사냥 능력이 떨어져 이미 죽어 썩어 가는 동물을 먹는 독수리처럼 시체 사냥꾼에 불과했다. 독수리보다 나은 것도 없었는데, 사체의 단단한 가죽을 찢을 날카로운 발톱도, 강력한 부리나 이빨도 없기 때문이다. 자랑할 만한 것이라곤 커다란 뇌밖에 없었던 인류는 주위를 둘러보며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돌을 찾아내서 그 돌로 가죽을 찢었다. 아마도 이런 도구의 발견이 인류의 첫 번째 디자인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인류는 돌을 갈아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좀 더 쉽게 사체를 찢었다. 돌칼은 인류가 창조한 최초의 요리 도구인 셈이다. '손재주 있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는 도구를 최초로 만든 인류로 추측되고 있다. 그 시기는 대략 290만 년 전쯤이다. 돌도끼와 창 같은 좀 더 진화된 사냥 도구를 만들어 능숙한 사냥꾼이 된 뒤에도 먹는 문제는 여전히 고역이었다. 왜냐하면 날것을

먹는 일은 이보다는 이빨의 능력을 요구한다. 날고기는 질기고 식물의 뿌리나 줄기, 견과류는 딱딱하다. 오랫동안 씹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화시키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음식을 먹은 뒤 식곤증이 몰려오는 건 피가 위장으로 몰려 뇌가 산소 부족 현상을 겪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는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방이 자연의 위협에 노출된 원시 인류에게 위험하다.

불의 통제와 이용은 인류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불은 온기와 밝기를 주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처를 마련해 주었다. 불이 인류에게 준 한층 결정적인 변화는 사람의 몸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다.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소화가 더욱 쉬워졌고 더 많은 에너지를 뇌가 가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위는 작아지고 장은 짧아져 다리가 길어지면서 사냥에 유리해졌다. 뇌는 더 커져 인류는 더욱더 정교하게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불을 이용해 날 음식을 어떻게 조리할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음식 도구의 디자인이 다양해졌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는 돌을 달구어 그 위에서 음식을 익히는 방식을 썼다. 그다음에는 구덩이 화덕을 이용했다. 먼저 땅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서 그 벽과 바닥을 돌로 메운다. 그 안에 장작이나 땔감을 넣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불의 열기를 흡수한 돌은 오늘날의 전기 오븐만큼이나 강한 열을 방출한다. 천천히 달궈진 돌은 오랫동안 열을 유지한다. 그 위에 날고기, 또는 나뭇잎으로 감싼 고기나 채소를 올려놓고 천천히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천천히 익힌 고기는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맛도 더 좋다. 3만 년 전쯤에 사용된 구덩이 화덕이 중부 유럽에서 발견되었는데, 화덕 근처에서 매머드 뼈가 발견되었다. 거대한 매머드를 사냥한 뒤 고기를 잘라 구덩이 화덕에 넣어 익혀 먹었던 것이다.

개방 화덕과 로스팅 잭 그리고 인덕션

인류가 집을 만들면서 구덩이 화덕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집의 중심에는 늘 불이 있었다. 집이란 불을 가두어 이용하는, 속이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은 요리를 하는 데뿐만 아니라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해야 하므로 초기 화덕은 개방되어 있었다. 이렇게 벽난로처럼 생긴 개방 화덕이 탄생했다. 근대가 되어 폐쇄된 스토브가 생기기 전까지 유럽의 부역을 지배했다. 개방된 화덕으로 요리를 하려면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 우선 고기를 직화로 구우려면(roasting) 뜨거운 장작불로부터 약간 떨어져 고기를 허공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안된 장치가 로스팅 잭(roasting jack)이다.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집의 중심에는 늘 불이 있었다. 유럽에서는 벽난로형의 개방 화덕을 거쳐 19세기 산업 혁명과 함께 석재 벽난로로 바뀌어 화덕의 디자인은 더욱 다양해졌다.

로스팅 잭은 쇠로 만든 꼬챙이다. 꼬챙이로 고기를 관통시키고 불 위나 옆에 설치한다. 가만히 두면 한쪽만 타기 때문에 꼬챙이를 지속적으로 돌려 줘야 한다. 꼬챙이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누군가가 쉬지 않고 돌려 줘야 한다. 이 고되고 지루한 노동을 턴스핏(turnspit)이라고 한다. 이 일은 기술이 필요 없어서 귀족의 대저택 부엌에서는 대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맡았다. 뜨거운 불 앞에서 꼬챙이를 돌리는 아이들은 얼마나 더웠을까? 이 열악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자 개를 이용하기로 했다. 도르래로 연결된 작은 쳃바퀴 속에 개를 가두고 돌게 한 것이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자기 의지로 러닝머신 위를 걷는 현대인과 달리 턴스핏 도그(turnspit dog)는 바퀴 속에 갇혀 허릴없이 몇 시간씩 견도록 강요받았다. 턴스핏 소년과 개를 해방시킨 건 기계화였다. 영국에서는 태엽으로 잭을 돌리는 자동 회전기가 18세기부터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19세기 산업 혁명과 근대화는 자동 로스팅 잭조차 과거의 유물로 만들었다. 개방 화덕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개방 화덕은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해로운 존재였다. 지나친 열이 요리사를 덥게 한다. 근대 이전에는 많은 요리사들이 옷을 벗고 요리를 했다. 불꽃과 매캐한 연기로 가득한 부엌은 건강을 위협한다. 연료 낭비가 심하고 무엇보다도 화재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폐쇄형 화덕이 19세기에 등장했다. 산업 혁명과 함께 석탄을 연료로 하는 무쇠 스토브가 보편화되었다. 커다란 상자 모양의 무쇠 스토브는 서랍처럼 여러 칸이 나뉘어 각각의 공간에서 다른 요리를 할 수 있다. 윗면에는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거나 냄비나 팬 요리를 할 수 있다. 스토브는 연통을 굴뚝으로 연결해 연기를 빼 낸다. 19세기 스토브는 연기를 어느 정도 제거했지만, 쇠가 지나치게 달궈져 여름에는 부엌이 엄청 더웠다. 20세기에는 가스레인지가 보편화되었다. 가스레인지는 부엌을 연기는 물론 열기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었다. 인덕션 스토브는 이제 집 안에서 불꽃조차 제거했다. 불과 100년 전 사람들은 불이 없는 부엌과 집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열망을 바탕으로, 그 과정이 힘들고 위험하며 더럽다는 것을 인식해 회피하려는 욕구가 결합한 결과다.

토기

요리 기술의 진정한 진보는 불로 직접 '굽는' 것이 아니라 물로 간접적으로 '삶는' 것이다. 물을 이용하려면 물을 담는 도구가 필요하다. 토기의 발견이야말로 요리 도구 디자인의 진정한 혁신이다. 인류는 대략 1만 년 전부터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

했다. 특이하게도 토기는 거의 모든 문명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명되었다. 토기가 발명되기 전 원시 인류도 '발견된' 그릇을 이용했다. 원시 인류는 온천수처럼 자연스럽게 달궈진 물에 음식을 익혀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아예 의도적으로 물을 뜨겁게 만들어 이용하고자 했다. 이 욕망을 해결하려면 커다란 도약이 필요하다. 바로 용기가 탄생해야 하는 것이다. 용기 역시 처음에는 자연에서 발견했을 것이다. 조개, 전복, 게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가 '발견된' 용기다. 큰 것으로는 거북이 등껍데기를 이용했다. 부드러워진 음식 덕으로 머리가 좋아진 인류는 머지않아 자연의 용기를 모방한 인공의 용기, 즉 토기를 만들기에 이른다. 용기의 탄생은 도구 디자인의 역사에서 현대인의 어떠한 창의적 인공물과도 견줄 수 없는 커다란 진보와 혁신이었다.

고대 세계에서 토기를 잘 만드는 나라는 번영했다. 고대 그리스는 토기를 주변국에 수출하며 강대국이 되었다. 고대 세계에 고온의 가마에서 빚어내는 토기는 오늘날의 IT 기술에 버금간다. 토기는 또한 예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토기의 표면을 장식했다. 이 장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므로 무용한 예술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스인들이 창조한 회화는 대부분 그들의 주요 수출품인 암포라(amphora) 토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토기는 음식을 단순히 익히는 차원에서 요리하는 차원으로 이동시켰다.

토기가 발명되자 그동안 딱딱해서 먹기 힘들었던 밀, 옥수수, 쌀 같은 곡물을 물에 넣어 끓일 수 있게 되었다. 물에 끓이면 독성이 있는 식물도 먹을 수 있었다. 인류가 곡물을 주식으로 삼게 된 것은 농업 혁명에 앞서 토기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토기는 물이라는 매개물로 음식을 요리하므로 여러 가지 이점이 따른다. 음식이 잘 타지 않는다. 겉과 속이 일정하게 익는다. 힘이 덜 들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직화보다 신경이 덜 쓰인다. 무엇보다도 여러 식재료를 혼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기원전 500년 전의 그리스 암포라
© shutterstock
(아래) 빗살무늬토기는 기능과 함께 장식이라는 예술 행위가 더해진 선사시대 인공물이다

요리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고기와 채소를 물에 같이 넣어 끓이면 더 맛있고 국물도 음식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소금, 고추장, 간장, 파, 마늘, 알코올 같은 양념으로 풍미를 더할 수 있다.

팬과 wok과 솥

기술이 발전하며 불에 약한 토기는 불에 강한 금속 용기, 즉 냄비로 발전했다. 금속 냄비는 열을 토기보다 효율적으로 음식 재료로 전달해 빨리 익힐 수 있다. 냄비는 프라이팬으로 그 기능이 분화되었다. 팬을 이용하면서 식재료를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튀기는 요리가 등장했다. 기름을 이용한 음식은 요리의 커다란 진화다. 기름은 물보다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므로 음식을 빠르게 익힐 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겉이 구워지면서 바삭바삭한 식감을 준다. 튀김 요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팬은 열 효율성과 기름진 요리라는 두 가지 장점으로 부엌에서 빠질 수 없는 장비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wok이라는 그들만의 팬으로 거의 모든 요리를 한다. wok은 강한 불로 기름을 고온으로 만든 뒤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빠르게 요리를 만든다. 이로써 중국인들은 연료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었다.

중국의 wok에 해당하는 한국의 요리 도구는 솥이다. 우리는 기름에 튀기기보다 삶는 요리가 더 많다. 무쇠로 만든 솥은 열기가 천천히 올라오는 대신 오래감으로써 열 효율성이 뛰어나다. 과거 부엌의 아궁이 위에는 언제나 이 무쇠솥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고대 시대부터 이미 무쇠솥을 만들었지만, 보편화된 것은 조선 시대다. 무쇠 솥은 무거운 뚜껑(무려 솥 전체 무게의 1/3)이 있어서 그 안에 열기를 가둔다. 특히 뜨거운 증기가 솥 안의 식재료를 천천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삶는다. 한국인은 솥으로 밥과 국 같은 주식은 물론 탕, 수육 등 많은 요리를 했다. 솥에 담아 물과 증기로 천천히 골고루 익히는 우리의 요리 기술은 wok에 넣어 기름으로 빠르게 튀기는 중국 요리와 대비된다.

현대의 압력밥솥은 구리 코일을 솥의 밑면과 옆면에 고르게 분포시켜 쌀에 열을 골

고루 전달하고,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뚜껑이 강한 압력으로 누른다. 이는 무쇠솥의 원리를 현대의 전기 기술로 재현한 것이다. 아쉽게도 그 맛은 무쇠솥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아궁이를 레인지가 대체하면서 무쇠솥은 일반 가정에서는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불을 멀리하는, 다시 말해 쉽고 안전하고 깨끗한 주방을 향한 진보는 거기에 더 걸맞은 전기밥솥을 수용한 것이다. 가스레인지 또는 인덕션, 전기 오븐과 전기밥솥, 냄비와 팬은 현대의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것들은 과거의 개방 화덕과 아궁이, 토기와 솥이 진화한 것이다. 하지만 요리에 대한 근본적인 취향과 열망은 바뀌지 않았다. 열기를 이용해 더 부드러운 음식을 먹겠다는 그 열망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유지하고, 우리는 더 생산적인 일에 머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글 김신 디자인 저널리스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월간 <미술공예> 기사를 거쳐 월간 <디자인>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13년에 대림미술관 부관장으로 있었다. 2014년부터 칼럼니스트로 독립해 디자인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아트리움
클래식
시리즈

성남아트센터 대극장 성남아트리움 클래식 시리즈 ARTISTS AT ROUNDS SERIES

- 5.11. SAT. 5PM**
<콘서트 발레 : 백조의 호수>
서울발레시어터 X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5.24. FRI. 7:30PM**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 6.26. WED. 7:30PM**
작곡가 시리즈 : 베토벤 I
- 7.27. SAT. 5PM**
작곡가 시리즈 : 베토벤 II
- 8.28. WED. 7:30PM**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김다미 X 송영훈 X 양성원
- 9.7. SAT. 5PM**
클라라 주미강
바이올린 리사이틀
- 11.23. SAT. 5PM**
<콘서트 오페라 : 코지 판 투테>

2024. 5. 11. - 11. 23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SEONGNAM+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3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SMART NEWS
성남미디어센터 경기도지사상 수상 外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March 2024

Calendar + Map + Programs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2024년 03월

희망찬 새봄의 시작 3월, 성남아트센터에서는 봄맞이 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채로운 음악 콘서트와 전시회부터 흥미진진한 뮤지컬과 연극까지,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2024.3

Ⓞ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 앙상블시어터 Ⓞ 성남아트리움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 TENUTO 정기연주회 <Dance, March, Chorus>(19:00) Ⓞ 서울영아티스트 음악콩쿠르 수상자 연주회(15:00)	2 Ⓞ 골든걸스 콘서트(14:00, 19:00) Ⓞ S.O.Phil.A 신입생 환영 연주회(19:00) Ⓞ 권마리-산애라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15:00) Ⓞ 가족뮤지컬 <로보카 폴리 - 잡아라 황금트로피>(11:00, 14:00, 16:30)	3 Ⓞ 판교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영화음악 여행(19:00) Ⓞ 김유상 피아노 독주회(15:00) Ⓞ 가족뮤지컬 <로보카 폴리 - 잡아라 황금트로피>(11:00, 14:00, 16:30)
4	5	6	7 Ⓞ 성남시립교향악단 202회 정기연주회(19:30)	8 ■Ⓞ 연극만원 1 <행복을 찾아서>(19:30)	9 Ⓞ 고고다이노-고고킹의 귀환(11:00, 14:00, 16:30) ■Ⓞ 연극만원 1 <행복을 찾아서>(14:00, 18:00)	10 Ⓞ 고고다이노-고고킹의 귀환(11:00, 14:00, 16:30) ■Ⓞ 연극만원 1 <행복을 찾아서>(14:00, 18:00)
11	12	13 Ⓞ 김삼 정상희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19:30)	14 Ⓞ 성남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지금부터 봄날'(19:30)	15 Ⓞ Ensemble M 정기연주회(19:30) Ⓞ 이진용 트롬본 독주회(19:30)	16 Ⓞ 뮤지컬 <레베카>(14:00, 19:00) Ⓞ 로망스 클래식 기타 합주단 정기공연(17:00) Ⓞ 뮤지컬 <친구의 전설>(11:00, 14:00, 16:00)	17 Ⓞ 뮤지컬 <레베카>(14:00, 19:00) Ⓞ 이육규 피아노 독주회(17:00) Ⓞ 뮤지컬 <친구의 전설>(11:00, 14:00, 16:00)
18	19 Ⓞ 김진욱의 대금: 연(演) IV(19:30)	20	21 ■Ⓞ 마티네 콘서트:3월(11:00)	22 Ⓞ 박창근 콘서트 'Mr.아보카도! 나의 3월을 부탁해'(19:00)	23 Ⓞ 라비던스 단독 콘서트 <Suddenly Festival>(17:00) Ⓞ 박창근 콘서트 'Mr.아보카도! 나의 3월을 부탁해'(17:00)	24 Ⓞ 김필×스윗소로우 <Suddenly Festival>(17:00) Ⓞ 박창근 콘서트 'Mr.아보카도! 나의 3월을 부탁해'(17:00)
25	26 Ⓞ 김삼 바이올린 독주회(19:30)	27 Ⓞ 성남시립교향악단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베르디 갈라 콘서트>(19:30)	28 Ⓞ 연극 <라면>(15:00, 19:30)	29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19:30) Ⓞ 연극 <라면>(15:00, 19:30)	30 Ⓞ <달 샤페트>(11:00, 14:00, 16:00) Ⓞ 서울시민교향악단 정기연주회(18:00) Ⓞ 연극 <라면>(14:00, 16:30, 19:00) Ⓞ 뮤지컬 <벚꽃 팝콘>(11:00, 14:00, 16:30)	31 Ⓞ <달 샤페트>(11:00, 14:00, 16:00) Ⓞ 연극 <라면>(14:00, 16:30, 19:00) Ⓞ 뮤지컬 <벚꽃 팝콘>(11:00, 14:00)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성남큐브미술관 특별기획전 <매그넘 인 파리>	~ 3월 24일	기획전시실
■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2월 16일 ~ 12월 22일	상설전시실
■ 2024 성남작가조명전 1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	2월 23일 ~ 4월 14일	반달갤러리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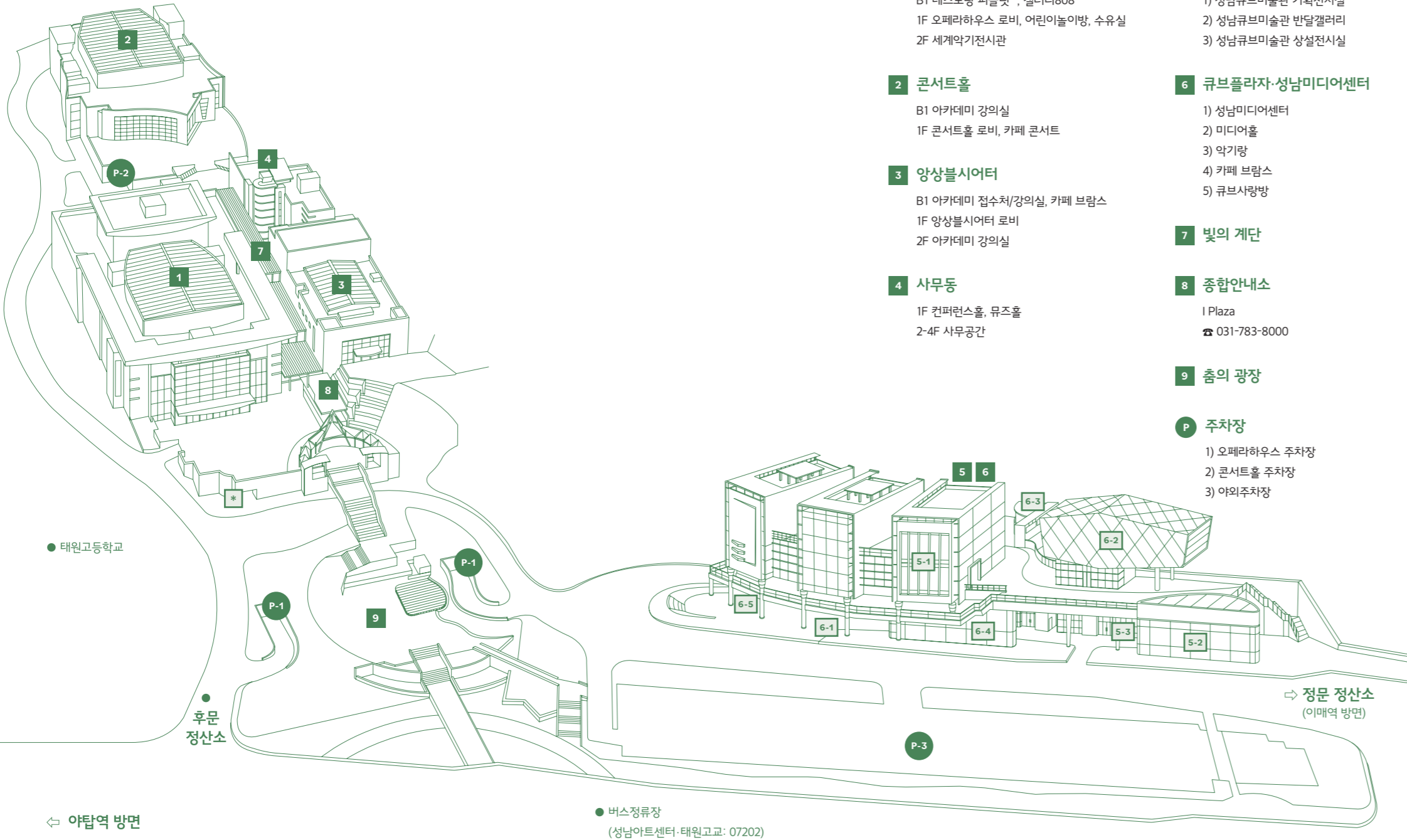
갤러리808

제4회 서동일 개인전-어사화	3월 1일~10일
임현주 개인전: 낙화-무지갯빛 감성 치유	3월 2일~9일
김남철 사진전: 세월의 흔적을 빛으로 그리다	3월 13일~20일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SUM(습) 정기전	3월 13일~20일
거룩한 힘	3월 13일~20일
성남조각협회전	3월 23일~30일
한국다중이인형예술협회 회원전	3월 23일~30일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1 오페라하우스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2F 세계악기전시관

2 콘서트홀

B1 아카데미 강의실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3 앙상블시어터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2F 아카데미 강의실

4 사무동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2-4F 사무공간

5 성남큐브미술관

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1) 성남미디어센터
2) 미디어홀
3) 약기랑
4) 카페 브람스
5) 큐브사랑방

7 빛의 계단

8 종합안내소

I Plaza
☎ 031-783-8000

9 춤의 광장

P 주차장

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2) 콘서트홀 주차장
3) 야외주차장







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

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 <마티네 콘서트>는 '보헤미아의 숲과 들'이라는 주제 아래 체코 출신, 또 체코와 인연이 깊었던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3월 21일 첫 공연에서는 서진이 지휘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서곡과 <나의 조국>으로 2024년 마티네 콘서트의 막을 올린다.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 3월 21일(목) 오전 11시

티켓 | 전석 25,000원
문의 | 031-783-8000

	<p>🔍 Monthly Guide</p>		<p>🔍 Monthly Guide</p>	
	 <p>매그넘 인 파리 : MAGNUM IN PARIS</p> <p>매그넘 포토스 소속의 전설적인 사진작가 39인이 포착한 '파리의 모든 것'.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오늘까지, 세계인이 사랑하는 낭만의 도시 파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200여 점의 작품 속에 펼쳐진다.</p>		 <p>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p> <p>성남큐브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엄선한 주제 기획전. 동시대 작가 8인(박상미, 고혜숙, 윤길영, 유한이, 유봉상, 조창환, 이계진, 황현숙)의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사유의 여정'을 만날 수 있다.</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 3월 24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성인 15,000원, 청소년 12,000원 문의 1661-1079</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2월 16일(금)~12월 2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p>2024 성남작가조명전 1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p> <p>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을 응원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이 올해 다섯 차례 관객을 만난다. 첫 전시인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은 권순욱, 김건, 김광민, 김이연, 장지혜, 정한별(가나다순) 총 6명의 청년작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내면을 탐구한 여정을 선보인다.</p>		 <p>연극만원만원만원 행복을 찾아서</p> <p>평단과 대중에게서 인정받은 연극을 단돈 1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성남아트센터 연극만원만원 시리즈. 2024년의 첫 순서 <행복을 찾아서>에서는 낯선 도시에서 마주한 운명적 만남, 평범하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4인 4색의 이야기를 만나 본다.</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2월 23일(금)~4월 14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p>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3월 8일(금) ~ 3월 10일(일) 오후 7시 30분(금), 오후 2시/6시(주말)</p> <p>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p>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경기도지사상 수상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이 운영하는 성남미디어센터가 202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유공은 2023년 신설 부문으로, 성남미디어센터는 부천·고양·수원·화성 등 경기 지역 11개 미디어센터 중 첫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2012년 12월 개관한 성남미디어센터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체 중심의 마을미디어 활성화 ▲시민 주도의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영화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독립예술영화 상영 등 지역미디어센터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경기권역 미디어센터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남미디어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지역미디어센터가 협력해 진행하는 지역미

디어센터 활동·유통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마을미디어 공개방송²⁰¹⁹, 마을 콘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2019~2023}, 지상파 라디오 시민 방송 참여^{2020~2023}, 4차 산업 관련 뉴미디어랩²⁰²², 경기로부터 시작하는 K-로컬워커²⁰²³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또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시민창작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기마을미디어축제에서 2019년 콘텐츠 분야 대상에 이어 2021~23년에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24년에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생생형 시를 활용한 뉴미디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청년과 예술인을 위한 미디어아트 등을 신설해 운영한다. 또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시니어를 위한 영화 상영 '청춘 시네마'도 부활할 예정이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1학기 강좌 개강



성남문화재단의 창의 예술 교육을 대표하는 아카데미가 2024년 1학기 강좌를 진행한다. 올해도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예술 실기, 감상·인문, 어린이 창의·융합예술 등 3개 부문 57개 강좌의 흥미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했다.

음악·미술·무용 등 예술 실기 정규 강좌는 직장인을 위한 저녁 강좌도 활성화했다. 바이올린·첼로·성악·실 크스크린·발레 등 단계별로 총 12개 반을 운영해 퇴근 후 예술로 힐링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감상·인문 강좌는 올해 주목해야 할 클래식 공연, 성남아트센터 해외 초청 공연 연계 강의, 작곡가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과 푸치니 서거 100주년 등 다양한 문화예술계 이슈

를 반영한다. 미술 강좌는 세계 신생 미술관과 미술계의 흐름 등 트렌디한 정보는 물론, 미술관과 옥션 등 현장 방문학습도 확대 예정이다.

창의·융합 예술 강좌를 총12개로 확대한 어린이 강좌는 그림책과 문화예술교육을 융합한 '연극 연계 그림책 예술놀이', 신화를 주제로 이야기와 연계해 자신만의 조형물을 만들고 이를 상자 속 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신화 인 더 박스' 등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의 어린이 강좌를 아카데미 특성에 맞게 변형해 시범 운영한다. 또 세계악기전시관과 연계해 음악을 중심으로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세계소리 여행', 체육·수학·문학 등 다른 교과 과정과 음악을 융합해 사고력을 키우는 '음악큐브' 등 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꾸몄다. 또 강좌별로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 자녀 1~2명이 무료로 참여하는 '예술그리나'를 시행해 문화소외계층의 예술교육 역시 확대 예정이다.

1학기 강좌는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아카데미 현장 방문과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문의 | 031-783-8156

성남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서정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운데),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왼쪽),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문화재단이 전국 지역 문화재단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확산의 플랫폼으로 위

상을 재정립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2월 27일(화)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에서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거리의 경계를 넘는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3개 재단은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예술가 지원 및 전시 사업 교류, 공동 사업 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해 전시 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1월 성남아트센터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지역예술가교류전'에 성남·부산·전주 세 도시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이후 부산과 전주에서도 교류전을 이어 가며 예술가들을 위한 활발한 소통과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남큐브미술관, 2회 연속 공립미술관 인증 기관 선정

성남문화재단의 성남큐브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공립미술관 평가에서 2회 연속 인증 기관에 선정됐다.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미술관 및 박물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다. 올해는 전국 67개 기관 중 성남큐브미술관을 포함한 총 40개 기관이 선정됐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성남큐브미술관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회 연속 인증을 통과하며 성남시 유일의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

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번 심사 기준은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이다. 성남큐브미술관은 그동안 전문성 있고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전시와 체계적인 소장품 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는 "미술관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올해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함께하는 전시와 미술관의 소장품을 지역의 공공 기관에 전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등을 통해 공립미술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수준 높은 미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snart.or.kr

내 손 안에, 우리 곁에 성남문화재단이 함께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재단이 운영하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정보와 성남아트센터 공연·전시 소식, 격월간 <아트뷰>의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ART +

In my hand, by our side ➔

MENU



유튜브
www.youtube.com/user/snartcente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ngnam_artscenter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ngnamart



네이버 블로그
www.blog.naver.com/snartc



카카오 채널
pf.kakao.com/_rdAfxl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SNS 채널로 연결됩니다.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김길복/이상숙 김동술/민인선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디앤씨 이사	정성조/심운영 (주)패션어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김명자/이승오 김문기/김인숙 김연태/이주숙 김영수/원종순	산후조리원 라크렐 대표 (주)금화 대표이사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정승립/한정복 정용석/이승걸 정은경/박민걸 정은기/박은숙 정인택/유경희 조남주/이규철 최병주/박인수
단천회원 강영귀/김연경 김진명/심정자 서창우/석남연	이노엘 대표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언우보험대리점 대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주)신성이엔지 회장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 CEO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로즈피부과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과 청담점 원장 한국디지털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치과 의사 / 한국화가 前 대교 이사장 경기일보 상무 (재)유엔젤보이스 제작감독 신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주)인홍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AMK 한화엔엑스엠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화가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정효문화재단 대표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철쭉회원 김부경/김모민 김상한/오다영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아람휴비스(주) CEO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배지영/윤영민 백종훈/지용애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화가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정효문화재단 대표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	---	--------------------	---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옥션 이사	서정림 손의명/손외자 하송 자/탁순희 신동화 신상진 오종영/이승희 유성희/유성은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화가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정효문화재단 대표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	-----------	--	---

단천회원 박 철/하정진 여영동/이육자 최희계순/김순자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前 (주)씨너스 회장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윤영상/박인영 이연옥/조상수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화가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정효문화재단 대표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	--	--------------------	---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성남문화재단
창립 20주년

SNCF
20th Anniversary

문화로 꿈꾼 어제

예술로 빛날 미래

